

제40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 아동문학의 글로컬리즘



- ◎ 일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3:00~18:00
-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세미나 1실
- ◎ 주최: 한국아동문학학회

제40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 한국 아동문학의 글로컬리즘

시간	발표 내용		
13:00~13:10	개회사: 최경희(회장, 전주교대)		
13:10~13:50	주제 강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컬 시대의 K-동화문학-한국동화의 문학과 세계화 가능성 □ 박상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회: 권애영 (한국의대)
13:50~14:30	주제 강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문제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엽(KBBY) 	
14:30~14:40	휴식시간		
14:40~15:10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1] 일본에서의 한국 어린이 책(옛날 이야기, 아동문학, 그림책)의 수용사 □ 발표: 오타케 키요미(동경준신대학) □ 토론: 박종진(연세대) 	사회: 오관진 (서울대)
15:10~15:40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2]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의 혼종성 연구: 한국적인 것 그리고 세계적인 것 □ 발표: 김태호(춘천교대) □ 토론: 방은수(서울교대) 	
15:40~15:50	휴식시간		
15:50~16:20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3]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문체적 죄책감 □ 발표: 김정은(공주교대) □ 토론: 진솔(광주교대) 	사회: 서희경 (숭실대)
16:2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4] ‘교가지어주기 운동’과 아동문인 작사 교가(校歌) 연구 □ 발표: 류영욱(부산대) □ 토론: 이운영(한국교원대) 	
16:50~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5]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탈주 서사 연구 □ 발표: 이현숙(서울교대) □ 토론: 강동희(아동문학평론가) 	
17:20~17:50	종합토론 및 윤리교육		사회: 한명숙 (공주교대)
17:50~18:00	총회		

주 제 강 연

[주 제 강 연 1]

글로벌 시대의 K-동화문학 한국동화의 문학과 세계화 가능성

박상재(동화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1. 글로벌 시대와 K-문화

요즘 글로벌(global)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이 단어는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 그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낱말이 생겨난 것이다. 글로벌이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벌이란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세계화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글로벌은 세계화 속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전통,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의 특산품이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글로벌 전략인 것이다. 글로벌은 글로벌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리즘(glocalism)이란 말도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용어로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지역중심주의(localism)가 결합해 생겨났다. 이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세계를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로컬리즘적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부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로컬리즘은 일정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관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다양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세계통합주의와 지역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리즘(glocalism)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즉 세계와 동질화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는 일은 문화적인 글로벌리즘의 예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기업 파트너와 제휴함으로써 현지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경제적인 글로벌리즘에 속한다.

오늘날 김치, 김밥, 라면,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등 K-푸드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K-팝, K-드라마, K-뷰티 등 K-문화가 세계문화의 중심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K-문화의 장점을 세계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글로벌리즘화 된 것이다.

2. K-동화문학의 비상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K-문화를 아동문학으로 미국에 소개한 교포 작가가 린다 수 박(박명진, Linda Sue Park)이다. 그녀는 1960년 3월 일리노이주 어배나 시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2002년 『사금파리 한 조각』(A Single Shard, 2001)으로 미국의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을 수상했다. 박 작가는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12세기 한국을 섬세한 문체로 표현한 『사금파리 한 조각』은, 당시대 한국 장인들이 불후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던 모습과 주인공 목이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목이는 민 영감처럼 멋진 도공이 되려고 그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멘탈이 강한 아이이다.

박 작가는 이 작품 외에도 『널 뛰는 소녀』(Fiction Seesaw Girl, 1999), 『연싸움』(The Kite Fighters, 2000), 『내 이름이 게이코였을 때』(When My Name Was Keoko, 2003)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박 작가 부모의 조국인 한국을 배경으로 K-문화를 소재로 쓴 것들이다.

2020년에는 백희나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선정 위원회는 “백희나는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재탄생시키고 있다. 백희나의 매혹적인 그림책 세계는 우리를 사로잡고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며 감동시킨다.”고 평했다. 필자는 백희나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장수탕 선녀님』, 『달샤베트』, 『이상한 엄마』 등을 살펴보려 한다.

『달 샤베트』는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달나라 옥토끼를 등장시킨 점이 이채롭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밤, 하늘에서 달이 녹아 똑똑 떨어진다. 아파트 반장 할머니는 커다란 대야를 가져와 노란 달물을 받아 샤베트 틀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얼려둔다. 전력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되고, 반장할머니 집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자 모두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다. 할머니가 이웃 주민들에게 달샤베트를 나누어주자 더위를 식히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 달이 녹아 없어지자, 지구로 내려온 옥토끼들이 할머니를 찾아온다. 할머니는 남은 달물을 꺼내 빈 화분에 붙는다. 화분에서는 환한 달맞이꽃이 피어나고, 얼마후 밤하늘에 보름달이 생긴다. 자신들이 살아갈 집인 보름달이 생기자 토끼들은 달나라로 돌아간다.

『장수탕 선녀님』에는 전래동화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선녀가 등장한다. 이야기는 동네의 오래된 목욕탕에 설치된 폭포수 벽화와 바위가 있는 냉탕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덕지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자칭 할머니 선녀를 만난다. 덕지는 요쿠르트를 먹고 싶어하는 선녀 할머니에게 자신도 먹고 싶은 요쿠르트를 주고 집으로 가지만 밤에 감기몸살에 걸려 힘들어 한다. 그런데 세숫대야에 나타난 할머니 덕분에 덕지는 감기몸살이 씻은 듯 낫는다.

『이상한 엄마』에 나오는 ‘호호’의 외할머니도 선녀이다. 비를 맞고 학교에 간 호호는 열이 심해 조퇴를 한다. 회사에 간 엄마는 호호를 돌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전화를 한다. 다급한 엄마는 전화 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자신의 엄마로 믿고 호호를 부탁한 후 전화를 끊는다. ‘아이가 아프다니 하는 수 없지. 좀 이상하지만 엄마가 되어 주는 수밖에.’ 이렇게 하여 호호를 간호하러 간 이가 바로 할머니 선녀인 것이다.

백희나 작품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클리셰로부터의 탈피이다. 무한한 상상력은 클리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작품에는 나오는 선녀는 아리따운 모습의 젊은 선녀가 아니라 할머니 선녀이다. 무더위로 달이 녹아내려 그 달물로 샤베트를 만든다는 상상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가? 달이 녹아 내리자 살 곳이 없어진 달토끼가 지구로 내려온다는 설정 또한 상상력의 극치이다. 선녀와 달토끼는 동양, 특히 한국의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이 한국적인 색다른 소재가 세계 동화올림픽을 석권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2021년 뉴베리상¹⁾은 한국계 작가인 태 켈러(Tae Keller)²⁾가 차지했다. 그녀는 한국인 할머니가 들려준 '해님달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When You Trap a Tiger』으로 백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상 당시 스물일곱인 태 켈러는 『깨지기 쉬운 것들의 과학』³⁾에 이어 이 책을 두 번째로 썼다.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은 릴리가 편찮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려고 워싱턴주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던 중 릴리에게만 보이는 호랑이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할머니를 만나면 “언제나 옛날 옛날 호랑이가 사람처럼 걷던 시절에~”라고 시작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기에 릴리와 언니는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늘 기다린다.

이 상을 주관하는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는 젊은 신인 작가에게 뉴베리 메달을 안기면서 이렇게 평했다.

“한국 민담에 생명을 불어넣은 마술적 리얼리즘의 걸작으로, 사랑과 상실과 희망을 환기시킨다. 할머니(halmoni)의 옛이야기를 통해 릴리는, 이야기가 있기에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울러 뉴베리상 위원회 위원장 존다 C. 맥네어는 “이야기의 힘에 관한 매혹적인 동화로, 필요한 순간에 솟아나는 힘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자기 안의 호랑이를 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평했다.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은 착한 아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 릴리가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본연의 존재 ‘호랑이 소녀’를 자각하는 이야기로 발전한다. ‘호랑이 소녀’란 릴리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해님 달님」 이야기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새로운 해님 달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호랑이 소녀’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된다. ‘마법 호랑이’가 릴리에게 들려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릴리가 뒤를 이어받아 병상의 할머니에게 들려주면서 마무리된다.

‘호랑이 소녀’는 낮에는 인간이다가 밤에는 호랑이로 변한다. 호랑이는 거칠고, 통제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하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언제나 더 원한다. 반면에 인간 소녀는 원해서는 안 되고, 남을 도와야 하고,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다. ‘호랑이 소녀’는 인간 소녀치고는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호랑이치고는 너무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두 갈래 삶” 속에서 고통받다가 어린 딸을 지상에 남겨 둔 채 하늘로 올라간다.

반인반수인 ‘호랑이 소녀’는 “4분의 1만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설명해야 했던 저자 자신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분노와 욕망과 자기주장을 감춘 채 조용하고 착하게 순응하면서 살기를 강요받는 존재, 즉 여성들과 아이들, 특히 소녀들을 상징한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모험 속에서 릴리가 깨닫는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호랑이 소녀’다.

릴리는 조용한 아시아 여자애, 투명 인간, 손이 안 가는 착한 아이라는 껍데기를 스스로 깨뜨리고 나온다. 이제 릴리는 분노할 일에는 분노하고, 자기주장을 똑똑히 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 얘기를 언니 샘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던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떡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1) 1922년 첫 수상자가 나온 이래 100번째 뉴베리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2) 1998년 아메리카 북어워드 수상작 『종군위안부』, 2020 『여우 소녀』의 작가 노라 옥자 켈러의 딸이다. 노라 옥자 켈러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세 살 무렵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주했다. ‘태’(Tae)라는 이름은 외할머니의 이름 ‘태임’에서 첫 글자를 따 지었다.

3)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라는 소재와 ‘과학 일지’ 형식을 통해, 가족 간에 금이 간 곳을 고치고 쉽지 않은 우정을 시험하며 희망과 사랑, 기적을 발견하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태 켈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태 켈러의 러브레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동생과 내가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던 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정말 오래 걸린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림을 이야기로 채웠지요. (…)

나는 분투와 고통만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전통과 가족의 힘, 마법, 기쁨이 돋보이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역사가 숨겨야 할 무엇이 아니며, 나의 뿌리는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할머니에게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마침내, 나는 적당한 말을 찾았습니다.

- 저자 홈페이지 중 ‘태 켈러의 러브레터’ 2020년 1월 29일자

‘저자의 말’에서 태 켈러는 이 책이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릴 적 자신과 여동생 선희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던 「해님 달님」 이야기에서 싹뻗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님 달님」과 유사한 설화는 전세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유럽의 민담에서는 이리와 염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순수한 동물담으로 전개 되고, 일본 민담은 가해자가 악마이고, 아이들은 하늘에 올라가 벌이 된다. 대만의 민담에서는 호랑이가 할머니로 변신하여 남매를 해치려 하지만 남매가 꾀를 써서 호랑이를 물리친다. 이렇듯 유사한 이야기들이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호랑이를 뗏에 가두면』은 태 켈러가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에서 태동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칼데콧상⁴⁾은 한국인 작가 차호윤⁵⁾의 『용을 찾아서』(The Truth About Dragons)가 수상했다. 칼데콧상은 한국인으로는 최초 수상이다. 이 책은 지난 9월 30일 한국에서도 출간(장미란 옮김, 열린어린이)되었다. 차 작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용을 찾아서』⁶⁾는 모험을 떠난 소년이 지혜로운 할머니의 안내로 빨간 용과 파란 용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중국계 미국인 작가 줄리 령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묘사되는 용을 소재로 글을 썼다. 서양의 용은 깊은 동굴에 살고 날개로 날아다니며 불을 뿜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동양의 용은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성한 존재다.

이 작품은 서양과 동양의 신화 속 용을 찾아 떠나는 소년을 그린다.

“모험가들은 보통 한 가지 이야기만 믿는단다. (….) 하지만 내 사랑, 우리 아가, 이제 소중한 비밀을 알려줄게. 네 마음속에는 두 숲이 만나는 곳이 있단다. 넌 두 숲 모두 가볼 수 있어. 두 세계 모두 발견할 수 있고.”

글 작가 줄리 령 역시 2020년 팬데믹 발발 후 아시안을 혐오했던 때 태어난 혼혈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글을 썼다. 이야기 속 두 동서양 할머니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연상하며 썼다. 차 작가가 “중국 쪽 자료조사를 많이 하겠지만, 한국적 요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것”이라는 염려를 전했더니, 령 작가는 “당신의 시선으로 그려준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적으로 그렸지만, 상상의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한국적 미감을 살렸다. 용은 조선 임금

4)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전년도에 출판된 아동 대상의 그림책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시상한다.

5) 차호윤(한나 차, 1995~)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으로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다.

6) 차 작가는 “용을 찾아서”의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터졌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거주하며 느낀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였다.”고 고백한다.

입던 곤룡포를 참고했다고 한다. 서양 편에서는 날카로운 펜촉으로 장식선을 테두리에 그려 넣었고, 동양 편에서는 민화⁷⁾ 붓을 썼다.

3. 에필로그

뉴베리상 수상자인 린다 수 박의 『사금파리 한 조각』, 태 켈러의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 차호운의 『용을 찾아서』의 공통점은 이야기의 모티브나 소재가 한국적이라는 것이다. 백희나의 작품에 주목한 것도 한국적인 캐릭터인 선녀, 달토끼 같은 한국 민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주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된 것은 글로벌리즘에 부합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걸로컬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작가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작가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보다 한국적인 소재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린다 수 박이나 태 켈러 이상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린다 수박의 널뛰기, 연싸움, 고려자기 등 한국문화를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 태 켈러의 한국민담이나 차호운의 한국민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미국 시장은 물론 세계적으로 각광받았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백희나나 태 켈러처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참신하면서도 깜짝 놀랄 판타지 마술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뉴베리상을 받은 한국계 두 작가들이나 린드그랜상을 거머쥔 백희나 작가, 2022 안데르센상 그림 부문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 한국인 최초로 칼데콧상을 받은 차호운 작가, 2024 안데르센상 글 부문 최종심까지 올랐던 이금이 작가는 K-아동문학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데르센상 수상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웃 일본은 안데르센상 수상자를 다섯 명이나 배출⁸⁾했다는 사실을 한국의 아동문학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민화붓을 너무 좋아한다. 수채화 붓은 균일하게 잉크가 퍼지지만, 민화 붓은 잉크를 머금고 있어서 얇고 굵게 표현하기에 좋다.” 그는 대학 재학 중 한국에 와서 민화 화가 정영애에게 민화를 배웠다.

8) 글 작가 부문에서 마도 미치오(1994), 우에하시 나호코(2014), 카도노 에이코(2018)가 수상 했고, 그림 작가 부문에는 아카바 수에키치(1980), 안노 미쓰마사가 수상했다.

[주 제 강 연 2]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문제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엽(KBBY 회장)

<p>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문제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p> <p>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추계학술대회 이성엽 (KBBY 회장) 2024년 10월12일(토)</p>	<p>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p> <p>·용어의 기원과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y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 global localization: 전세계적으로 브랜드(Sony)는 동일하되 국가별 소비자 기호 반영하여 제품의 색상이나 기능에 차이를 두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1980년대 재계의 특수 용어로 정착 - 1990년 초, 경영학, 마케팅 분야 전문어로 정착 - 이후,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학문적으로 용어를 개념화 하고자 함
<p>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p> <p>· 사회학에서의 개념화 시도</p> <p>·Robert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과 글로벌 사이의 불가피한 긴장에 대해 논하는 것 보다, 양자를 대립이 아닌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는 것 가능'(Robertson & White, 2007: 62; 김기홍, 2018에서 재인용) - 글로벌은 글로벌, 지역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 글로벌화는 로컬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강상원, 2020) :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를 내포 <p>·Ritz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화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Ritzer, 2003; 김기홍, 2018 재인용) - Globalization (Glocalization ↔ Globalization) <p>·Roudometo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와 지역의 상호의존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박치원, 2020) 	<p>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단순 정의</p> <p>·토착화 혹은 세계의 지역화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 회사의 상품이나 전략이 지역에 맞도록 어떻게 변모하고 적용하느냐'라는 면과 '지역적인 것이 세계성을 갖도록 어떻게 변모되고 맞추어 지느냐'라는 면, 두 가지 모두가 응해되어 있음</p> <p>(박치원 외, 『글로벌문화콘텐츠, 어떻게 그리고 왜?』, 2009)</p>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속성

• 로컬과 글로벌의 상호침투: 보편화와 개별화, 균질화와 이질화, 수렴과 확산의 동시 진행, 양자의 동시적 상호작용으로 해석

→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 보편적인 동시에 개별적

•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접미사 '-ization'에서 알 수 있듯이, 상태의 변화, '글로벌' 상태로 되어감을 의미. 글로벌은 과정에 붙여진 이름.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양극단에 위치한 장소 암시적 개념의 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떤 운동성에 관한 것. 혼종성 정도의 측정문제는 이와 같은 운동성 속에서 하나의 문화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컬에서 변형을 통해 도착화를 거치게 된다는 특성이 있음(김기홍, 2018)

→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계속 소통해야 함

글로벌라이제이션 & 문화

• 글로벌리즘은 세계문화의 자국화와 자국문화의 세계화가 동시에 발생 하는 것 (박남희, 2014)

• 문화적 타자를 인정하고, 또다른 문화적 타자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는 계기 (박남희, 2014)

•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즉 세계와 동질화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는 것은 문화적인 글로벌리즘의 예 (이호진, 2006)

글로벌 문화 콘텐츠

• 한국문화콘텐츠의 교역이 '로컬문화의 세계시장 진출'임을 감안할 때, 글로벌문화콘텐츠 기획은 경영-마케팅이 주장한 글로벌적 지위에서의 세계-지역화 대신, 로컬 문화의 세계화인 '지역-세계화(local globalization)'를 추구함(유재상, 2013)

•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관리하는 이시하라 사장의 인터뷰

'포켓몬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 몇 안 되는 아이덴티기 때문에 왜일까'라는 질문을 항상 들어요. 제 대답은 같아요. '세계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을 포켓몬 스토리와 구조 안에 녹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개를 키우면서 논다든지, 키우는 식물의 꽃이 필다든지... 포켓몬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접하는 즐거움을 전해 주지요. 프랑스 어린이가 놀 때도 '아, 이 포켓몬은 예전에 내가 키웠던 애완동물이랑 완전히 똑다 박았어'하고 느끼는... 경험과 기억을 슬쩍 건드렸다고나 할까요. '아 난 이제 해 본 적이 있어. 저거 본 적이 있어'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지요.'

(오은희, 『포켓몬 하나로 50조원 매출.. 이시하라 사장 인터뷰』, 『조선비즈』, 2012년 1월13일자)

한국 그림책의 세계 진출

• 한국 그림책은 한류 상품으로써 세 번째 소프트 파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소프트 파워란, '다른 나라의 사고방식이나 선호도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G. Lee, 2009; Girão, 박성애, 2024 에서 재인용)

<h2 style="text-align: center;">프랑스어권에 출간된 한국 그림책</h2> <p>1) 시간 흐름에 따른 출간 경향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초반, 한국적 문화 등 특수성에 기반한 작품 출간 •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성에 바탕한 작품 출간 (특히, 2010년 이후) <p>2) 출판사의 출판 기조에 따른 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quet 출판사는 한국적인 주제, 한국적 시공간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주로 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특수성이 부각되는 작품을 출간하던 출판사들이 한국 그림책 출간을 멈춤 • Joie de lire 출판사는 오히려 보편적 주제, 한국적인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시각 기법의 작품 출간 	<h2 style="text-align: center;">Flammarion (Chan-ok) (2006~2009)</h2> <p>• 출판 방향: 한국적 특수성이 표현된 한국 그림책 출간</p> <p>“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교육을 보여주기 위해 미학적이고 지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림책을 한 층씩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이미지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거나 한국의 문화 특수성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그림책들을 출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옥 출판사의 그림책들이 기대를 넘어서고, 의미와 역사성을 담고 있으면서 시각적으로 훌륭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독자를 놀라릴 수 있을 바란다.”</p> <p>(Hélène Charbonnier, Citrouille 잡지를 위한 Simon Roguet 서점과의 인터뷰; Tahar, 2012, p.58)</p> <p>* 2009년 Flammarion에 의해 인수되고, 한국 그림책 수입이 점차 줄다가 없어짐</p>
<h2 style="text-align: center;">Flammarion (Chan-ok)에서 출간된 한국 그림책 (2007~2012)</h2> <p>• 독자층 확장을 위해,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p> <p>Flammarion의 “천옥” 리벨 담당자 Bénédicte Roux에 의하면, 정체되지 않고 더 폭넓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천옥의 키랄로그를 약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서로 너무 유사한 텍스트들만 출간되어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har, 2012, p.63)</p>	<h2 style="text-align: center;">Philippe Picquier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 그림책 (1986년 ~)</h2> <p>• 중국, 일본 고전 문학 및 현대 문학 출간, 차츰 한국,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문학 출간에 전문화, 2003년부터 아동도서 출간 시작</p> <p>• 아시아 문학 작품 전문 출판사인만큼, 한국적 특수성이 부각된 그림책에 대한 선호를 예상</p> <p>• 김진경, 김재홍, 『고양이 학교』 (2004년 번역 출간)</p>

Philippe Picquier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 그림책 (1986년 ~)

•작품 속에 고유 문화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성 중요

“우리는 한국 작품을 고를 때 신중을 기합니다. 두 번 연속으로 판매율이 좋지 않은 작품을 번역 출간할 경우,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외국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에 **보편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07년부터 Philippe Picquier 출판사 한국 컬렉션 고문, 한글 번역가 임영희 인터뷰,

«연합», < L'universalité et la qualité, les deux défis à l'international de l'édition (해외에서의 출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보편성과 질)>, 2016/03/18

•Chan-ok 라벨의 그림책 목록에 비해, 한국적 문화 상징이 부각된 작품의 비율이 낮음

Didier Jeunesse 출판사 (1988년 ~)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동요, 동시 출간 / 전세계 옛이야기 그림책 등을 주로 출간

•한국 그림책, 시 그림책 / 그래픽 차원에서 현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

Rue du Monde 출판사 (1996년 ~ 현재)

•2009년부터 한국 그림책 출간, 시각적 독창성 + 보편적 주제

•대부분 Alain Serre 번안

L'élan vert 출판사 (1998년 ~)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 타인을 향해 열린 정신, 문화 다양성, 환경 존중, 인간 존중, 시각적 표현 중시

•2019년부터 한국 그림책 출간, 시각적 표현에 초점 + 보편적 주제

프랑스에 출간된 한국 그림책

•출간 경향의 변화

1) 2000년대 초

•프랑스에 출간된 한국 그림책들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두드러졌음

• 한국 문화 특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호하는 프랑스 출판사들의 활약 (Chan-ok 28종, Philippe Picquier 17종)

2) 2010년대 후반부 이후

• 한국 그림책들을 수입하여 출간하는 주요 출판사들이 달라짐 (Rue du Monde 13종, L'élan vert 9종)

• 특수성을 감안하지만 보편성을 중시

• 시각적 표현에 주목

※ 문화적 특수성보다는 시각적 독창성, 보편적 주제를 보여주는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문화적 특수성만 부각되기보다는, 그 특수성을 보편성과 독창성을 통해 표현하는 한국 그림책 선호

한국 그림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과제

- 번역 출판 지원의 필요 (이준관, 2024)
- 저작권 계약을 위해 필요한 영문 번역 지원 (신서희, 2021)
- 전문 서점의 해외 매장 운영 (『2023 출판시장 결산과 트렌드 예측』, 『출판N』, 2023, 12)
- 역량 있는 문학 에이전트의 다리 역할 중요 (임영희, 연합 «L'universalité et la qualité», les deux défis à l'international de l'édition, 2016/03/18)
- 작품 내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적절한 조합 (임영희, 연합 «L'universalité et la qualité», les deux défis à l'international de l'édition, 2016/03/18)
- 해외 저널에 한국 그림책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원고를 기고함으로써, 외국 학자 및 독자들의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 제고

주 제 발 표

[주 제 발 표 1]

일본에서의 한국 어린이 책(옛날 이야기·아동문학·그림책)의 수용사

오오타케 키요미(동경준신대학)

한국아동문학학회 2024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일본에서의 한국 어린이 책(옛날 이야기·아동문학·그림책)의 수용사

東京純心大学 教授 大竹 聖美 (DTAKE Kiyomi) kiyomi@hobmsi.com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 한국 그림책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림책>

<p>한글</p> <p>『기와 가노코』 박민영 글·그림, 차올출판사, 2004</p>	<p>판소리</p> <p>『어린이 판소리 그림책 수궁가 (CD 포함)』 이현순 글, 이육성 그림, 아동출판사, 2004</p>	<p>십장생</p> <p>『십장생을 찾아서』 지행한 글·그림, 시공사(시공사출판부), 2010</p>	<p>왕궁</p> <p>『왕복궁』 이은진 글·그림, 고인사(高人社), 2011</p>
<p>설날</p> <p>『설날』 이은진 글, 문선재 그림, 시공사(시공사출판부), 2010</p>	<p>시장</p> <p>『한국의 동네 시장 이야기』 문선재 글·그림, 미쓰무라 교육도서, 2013</p>	<p>책포</p> <p>『책포』 이은진 글, 김동승 그림, 후쿠에인간(福江堂), 2019</p>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 한국 그림책 <한국 현대사회를 알 수 있는 그림책>

가족·학교·현대사회

『선해 기차』 이은진 글, 안병도 그림, 아동출판사, 2004	『나의 사육동』 이은진 글, 안병도 그림, 아동출판사, 2004	『예기치 않은 만남』 박수정 글, 정은숙 그림, 미쓰무라 교육도서(大村教育図書), 2019	『제주도 해녀』 이은진 글, 정은숙 그림, 미쓰무라 교육도서(大村教育図書), 2019
------------------------------------	-------------------------------------	--	---

제주도 해녀

『정미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글·그림, 말미손그림, 우쿠노도모샤(主観の発刊), 2020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의 한국 그림책 <시·자장가> <고전설화·창작이야기>

시 그림책

『행여』 민병철 글, 이육성 그림, 아동출판사, 2011

고전 설화·창작 이야기

『신기한 그림책』 이은진 글·그림, 아동출판사, 2004	『해피와 괴물 사냥대』 이은진 글·그림, 정아섭 글·그림, 아동출판사, 2004	『마법의 나라에서 온 삼사리』 이은진 글·그림, 아동출판사, 2004	『황소와 도깨비』 이은진 글, 한병호 그림, 아동출판사, 2004	『모기와 찰흙』 이은진 글, 이육성 그림, 아동출판사, 2004	『엄마의 뜻이 뭐예요?』 이은진 글, 김대숙 그림, 미쓰무라 교육도서, 2008
---------------------------------	--	--	--------------------------------------	-------------------------------------	--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의 한국 그림책 <옛날이야기>



『황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서정오 글·한지혜 그림, 고진미(古今社), 2001

『말죽 할머니와 호랑이』
포토상 글, 윤미숙 그림, 아동출판사(アーン), 2004

『호랑이와 굴집』
박재홍 글·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06

『개와 고양이』
서정오 글, 신연재 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07

『말지 대왕의 꿈』
한미진 글, 이종관 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19

『트윙키와 톱둥이』
트윙키와 톱둥이 글·그림, 2015년 12월호,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15년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의 한국 그림책 <최근의 새로운 그림책>



『내가 예쁜다고?』
황민찬 글, 이명재 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23

『튤립 호텔』
김지연 글·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23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김효은 글·그림, 차이세아이(異世愛), 2023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권장 도서 지정(第56回夏休みの本(綠陰図書)指定)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00年代

미와야 사자나미 (巖谷小波)
『세계 오토기바나시 (世界お伽噺)』
『동명이의 행방 개와 고양이 싸우는 유래』
하쿠분관 (博文館) 1903.7

부산에
살던
독일인
Arnous가
쓴
독일어 책
Koreanische
Märchen
und
Legenden
,1893을
원문으로
해서 썼다



巖谷小波『世界お伽噺』第47編
『石乃行方 一名犬塚廻轉の由来』博文館
1903(明治36)年7月



『황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서정오 글·한지혜 그림, 고진미(古今社), 2001

『말죽 할머니와 호랑이』
포토상 글, 윤미숙 그림, 아동출판사(アーン), 2004

『호랑이와 굴집』
박재홍 글·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06

『개와 고양이』
서정오 글, 신연재 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07

『말지 대왕의 꿈』
한미진 글, 이종관 그림,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19

『트윙키와 톱둥이』
트윙키와 톱둥이 글·그림, 2015년 12월호, 마쓰무라교육도서(光村教育図書), 2015년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00年代**

이와야 사자나미 (巖谷小波)
『세계 오토기바나시 (世界お伽草子)』第64編
『용궁의 사자』하쿠분관 (博文館) 1904.11



1900년에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간 여인들이 일본어로 쓴 글을 바탕으로 재화했다

巖谷小波編『世界お伽草子』第64編
『龍宮の使者』博文館
1904(明治37)年11月

오오타케 키요미 번역 한국 그림책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림책>

한글 판소리 십장생 왕궁 설날 시장 책포



『가자 가자』 박은경 글·그림, 이룸출판사, 2004
『머핀의 판소리 그림책 수궁가 (CD 포함)』 이혁순 글, 이복남 그림, 이룸출판사, 2004
『십장생을 찾아서』최영환 글·그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왕복음』이순원 글·그림, 고만사(講談社), 2011
『설날』 오정희 글, 홍진태 그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시장』 이복남 글·그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책포』 이순희 글, 김동승 그림, 우쿠린팅(福育館) 2019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10年代**

이와야 사자나미 (巖谷小波)
『세계 오토기문고 (世界お伽文庫)』第27編
『이무기의 꿈』하쿠분관 (博文館) 1912



부산에 살던 독일인 Arnous가 쓴 독일어 책 Koreanische Märchen und Legenden, 1893을 원문으로 해서 썼다

巖谷小波編『世界お伽文庫』第27編
『大蛇の夢』博文館
1912(大正元)年9月



巖谷小波編『世界お伽文庫』第27編, 『大蛇の夢』博文館, 1912(大正元)年9月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10년대**

이와야 사자나미 (巖谷小波)
『세계 오토기문고 (世界お伽文庫)』第28編
『별의 사랑』하쿠분관 (博文館) 1912



부산에 살던 독일인 Amous가 쓴 독일어 책 Koreanische Märchen und Legenden, 1893을 원문으로 해서 썼다

巖谷小波編『世界お伽文庫』第28編 『星乃縁』博文館, 1912(大正元)年10月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20년대**

모범 가정 문고 (模範家庭文庫) (전 24권) 후산보우(富山房) 1915~1932



『조선동화집』 (1926)

模範家庭文庫『朝鮮童話集』富山房, 1926年



模範家庭文庫『朝鮮童話集』富山房, 1926年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30년~50년대**

김소운이 일본어로 쓴

조선동요선 (1933)
조선민요선 (1933)
조선민화선 (1953)
조선시집 (1954)



1933年 金素雲『朝鮮童話選』岩波文庫
1933年 金素雲『朝鮮民謡選』岩波文庫
1953年 金素雲『朝鮮民話選』ネギをうえた人』岩波少年文庫
1954年 金素雲『朝鮮詩集』岩波文庫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60년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한일 국교 정상화

1965年
日韓基本条約締結
日韓国交正常化

일본인이 한국어를 공부한 후 한국어 원서를 번역한 최초의 출판물



『オンボケの日記』
李錫福記, 塚本勲訳
太平出版社
1965年6月



2006年



『オンボケの日記』
李錫福記, 塚本勲訳
太平出版社
1965年6月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70년대**

일본인 유명 인기작가 (마츠타니 미요코)가 재화한 『조선의 민화 금강산 호랑이』

松谷みよ子・瀬川祐男再話, 梶山敬夫絵
『朝鮮の民話』太平出版社, 1973年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80년대**

『조선의 옛날 이야기 삼년고개』



李錫玉作, 朴民宜絵『さんねん峠』
岩崎書店, 1981年

『조선의 옛날 이야기 의좋은 형제』



李錫玉作, 朴民宜絵『へらなひ福たば』
岩崎書店, 1985年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90年代**

한국의 옛날이야기



조선민화의 시대에서 한국옛이야기의 시대로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1990年代 그림책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1990년대 번역 출간된 한국 그림책은... 3권뿐이었다



한국의 아동문학·그림책이 일본에 수용된 터닝포인트 -2000년-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2000년 개관

~어린이책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국제어린이도서관 HP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
 '어린이의 세계에서~ 한국 그림책 원화전'
 2000년 4월 28일~5월 13일 국제교류기금 포럼에서 원화가 전시된 그림책
 이후 한국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다

【オにの世界から~韓国絵本原画展】

백두산대 이야기, 강아지몽,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리랑 달빛동무, 무악나그네서 온 라노라, 황소와 도깨비, 새지와 곡물 사탕재, 기차가르니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 동요, 아동문학, 그림책을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2000年代** 2000년에 권정생의 대표작이 번역 출판되었다

2000년 동실연니, 2000년 강아지몽

『몽실연니』 문·權正生, 繪·朴眞實, 訳·紀子でらいんく, 2000年
 『こいぬのうんち』文·權正生, 繪·ジョンペン文, 子ジョン・スンク, 訳·キジト新, 平井社, 2000年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권정생 작품

꽃밭간다, 강아지몽, 오소리네 집 풀밭, 양아귀무리, 황소대위, 아기노구리네 봄맞이, 강남이, 조가집이 있던 마을, 금강선 호랑이, 슬픈 나막신

2000년 이후 번역 출간된 한국의 동화·아동문학

영이부리말 아이들·2002, 행복한 세상·2003, 마당을 나온 암말·2003, 연탄길·2011, 황금강, 오빠의 언니, 저쪽의 손, 저쪽의 손

시리즈 <지금 읽자! 한국 베스트 아동문학> 조분사 (汐文社) 2005
 『シリーズ<いま読もう!韓国ベスト読みもの> 汐文社 (2005年)』

현문미디어 <한국 인기 동화 시리즈>



17. 現文メディア<韓国人気童話シリーズ> (2008~2011)

2000~2010년대 일본에서 한국 그림책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형성되었다

<p>2005年</p> <p>絵本学会「ブックエンド 特集 韓国絵本が面白い!」 2005年3月</p>	<p>2006年</p> <p>宮野田文子「ようこそ! 絵本の世界へ」(共著) 学燈社, 2006年(『世界の絵本事情』韓国版)</p>	<p>2006年</p> <p>『絵本をひらく 近代絵本の研究』人文書院, 2006年(『狂歌のデザイン』を伝えるサブゼリ(チヨンスン)が「くらすみ」からきた「ザサリ」-韓国童話の文化に探った絵本も子どもたちに)</p>	<p>2018年</p> <p>『絵を読み解く 絵本入門』 (『アリスちゃんの手帳』-美術的伝統の継承と異国の文化的探求)</p>
---	--	--	---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백희나



일본에서 자주 강연회나 워크숍을 하고 있는 이수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의 혼종성 연구: 한국적인 것 그리고 세계적인 것

김태호(춘천교육대학교 부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 아동문학의 글로컬리즘
- III.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에 나타난 성장과 혼종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근래 우리 아동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문학과 미학을 인정받고 있다. 2020년 『알사탕』을 그린 백희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수상했고, 2022년에는 『달샤베트』로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이수지 작가는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는 『위를 봐요』, 『벽』으로 2015년, 2018년 두 차례나 볼로냐 라가치 상을 수상한 정진호 작가를 비롯하여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세계화는 그림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황선미 작가의 밀리언셀러 『마당을 나온 암탉』은 세계 29개국에 수출되어 세계의 많은 아동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영국의 대형서점 워터스톤즈의 ‘2014 올해의 책(paper back)’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故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 역시 일본, 대만, 스위스,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고 연극, 발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그중 연극은 2009년 영국에서 열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김진경의 『고양이학교』는 프랑스에 번역되면서 제17회 앵코뤼티블 상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 상은 어린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작품을 투표하여 선정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더 깊다.

한국적인 아동문학 작품이 혼성성을 바탕으로 문학과 미학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재외동포 태 켈러(Tae Keller)는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When Yoy Trap a Tiger)』으로 2021년 뉴베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 소녀 릴리가 할머니가 들려준 한국 옛이야기 속 호랑이와의 환상적 교섭을 통해 성장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2002년 역시 재외동포였던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이 『사금파리 한조각(A Single Shard)』로 뉴베리 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 이 작품 역시 12세기 한국에서 도예공으로 성장하는 소년의 서사를 담아 혼성성이 강조된 작품이었다. 이들 작품은 뉴베리상 수상작으로서 그 문학과 미학을 인정받아 전 세계의 아동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서사

가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 및 서사와 혼종되어 창의적인 서사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아동문학이 한류 물결에 합류하여 전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담론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우리 아동문학 작품들이 해외 각국에 얼마나 번역되고 있고 몇 부나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하면서 출판사나 작가에게 문의하거나 해외 각국의 도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우리 아동문학의 수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지경이다. 출판사에서 상업적 기획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이슈 페이퍼나 뉴스 등 기사에 의존하여 우리 아동문학의 세계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우리 아동문학의 세계화 현황 및 성과, 차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아동문학’, ‘그림책’, ‘동화’, ‘동시’ 등과 ‘세계화’, ‘글로벌’, ‘글로벌리즘’ 등의 검색어를 복수 조합하여 입력한 결과 단 두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장영미의 「한국 아동문학의 해외 번역 현황과 특성 연구-영어권, 불어권, 일어권 사례를 중심으로」(『돈암어문학』 제25집, 2012), 장영미의 「한국 아동문학의 해외 소개 현황과 과제 연구」(『스토리&이미지텔링』 제11집, 2016)이다. 이 연구들은 당시에 한국 아동문학의 세계화 현황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이후 한국 아동문학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20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림책의 국제적 성과가 돋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을 반영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학문적 탐색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리즘 측면에서 태 켈러의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의 혼종성을 분석하여 한국적인 서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서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한국 아동문학의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Glocalism)’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을 결합한 용어로 문화가 생산되는 공동체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을 뜻한다. 글로벌리즘과 달리, 세계화 경향 속에서도 지역적 특성 및 문화,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아동문학의 세계화 현상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다.

현 시대는 문화적으로 교섭하는 문화적 전환의 시대다. 이는 정치나 경제 등이 절대적인 권력 및 효용을 갖던 시대에서 탈피하여 문화 예술의 의미 및 가치에 힘이 실림을 뜻한다. ‘이성적 주체’(Cogito)를 절대시했던 근대적 세계관에서는 국가, 민족, 종교, 지역 등에 차별적 논리가 사회를 계급화하였으나, 탈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주체와 타자 간의 위계 및 불균형을 만든 가치 및 기준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관점 역시 글로벌리즘에서 글로벌리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통신 기술, 교통의 발전 속에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 이른바 ‘지구촌’이 되면서 시차 없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글로벌리즘이다. 글로벌리즘의 기치 아래 전 세계는 시장의 논리와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특정 지역의 문화 및 전통을 약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로컬리즘이었다. 탈근대 사회에 타자 및 소수자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연히 중심/주변

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특정 지역의 지역성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리즘이 등장하였다.

글로벌리즘은 자국 문화를 세계화하려는 의지와 세계 문화를 자국화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함의한다. 세계화 시대 해외 문화의 유입 속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고 우리 문화를 내세움으로써 글로벌리즘 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내세우면서 극단적인 쇠국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 결국 글로벌리즘은 다문화주의에서 기인할 수 있는 문화적 다공성과 비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쇠국주의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된다.

우리 아동문학의 세계화 현상을 파악할 때에도 글로벌리즘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가장 한국적인 아동문학,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가장 지역적인 아동문학이 전 세계에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으로 수용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림책 『솔이의 추석이야기』(이억배, 1995)는 도시에 사는 솔이네 가족이 추석을 맞이하여 시골에 가면서 경험한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 만들기, 차례 지내기, 성묘, 풍물놀이 등 한국의 시골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서사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한국의 아동 독자들은 물론, 전 세계의 아동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솔이의 추석이야기』는 2001년 여름 일본 교육계에서 여름 과제 도서로 지정되어 일본 전국의 학교 관계자, 교육관계자, 도서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일본 전국 초등학교생들에게 향유되었다.

근래 우리 아동문학의 글로벌리즘이 보인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이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이 2021년 뉴베리 상을 수상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뉴베리 상(Newbery Medal)은 1921년 미국도서관 협회 협회장 뉴베리가 제창, 수여한 미국의 아동문학상으로 매년 미국 도서관 협회가 미국 아동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품에 수여한다. 뉴베리상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칼데콧 상(Caldecott Medal)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한 상을 한국계 미국인인 태 켈러가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 혼성된 성장서사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로 수상한 것이다.

그간 우리 아동문학이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사례는 주로 그림책에 한정되었다. 그림책의 경우, 글과 이미지의 상호작용으로 서사가 중계되어 이미지의 미학적 기능이 중요하고 보통 글은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소통될 여지가 크다. 그에 비해 동화나 아동소설의 경우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해 그 미학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이하 ‘『호랑이』’로 약칭)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태 켈러가 미국 문화를 기반으로 영어로 창작하였기에 작품성을 인정받은 면이 크다.¹⁾ 그럼에도 이 작품의 뉴베리 상 수상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아동문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탈근대 시대에 국가는 권력 기구이자 제도적 경계일 따름이며 문학이나 예술은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려는 미학적 지향이다. 태 켈러는 비록 미국 국적을 가졌으나, 그의 이름 ‘태(Tae)’는 할머니의 이름 ‘태임’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그는 한국에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태 켈러는 ‘작가의 딸’에서 누군가 한국인이냐고 물을 때 ‘4분의 1만 한국인’이라는 대답을 반복하면서 그것인 혈통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개념이기에 잘못된 대답이라 느꼈다고 하였다(『호랑

1) Tae Keller, *When You Trap a Tiger*, 강나은 역,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 돌베개, 2021.

이』, 326). 이는 국적은 물론 혈통에 따라 한 인간을 규정하는 강제성과 폭력성에 대한 거부이다.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며 문화는 인위적으로 경계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태 켈러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준 한국의 옛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가족의 역사는 물론 식민 지배와 핍박, 숨겨진 언어와 잊힌 이야기 등 한국의 역사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의 복수적 정체성 속에는 엄연히 한국적인 것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그의 정체성은 『호랑이』에도 반영되어 있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호랑이의 환상, 할머니의 말이나 행동, 할머니가 들려주는 서사, 주인공 릴리가 구성한 서사 등은 분명 한국적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호랑이』는 우리 아동문학의 글로컬리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글로컬리즘 측면에서 『호랑이』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아동문학이 세계적인 미학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에 나타난 성장과 혼종성

1. 환상과 리얼리티의 교차 그리고 성장

『호랑이』는 성장서사이다. 주인공 릴리가 할머니와의 사별을 통과제의 과정으로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동문학 혹은 청소년문학에서 ‘죽음’의 수용 및 극복을 통한 성장을 담은 작품들은 흔하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 그러한 성장 과정을 환상과 리얼리티의 변주로 형상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릴리는 할머니와의 재회부터 할머니의 질병을 알고 끝내 사별하기까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랑이’의 환상을 경험한다. 호랑이는 릴리의 시선에만 보이는 존재이지만, 릴리의 심리적 현실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릴리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갖는 인물이다. 그렇다고 호랑이의 환상이 1차 세계로서 현실세계와 분리된 2차 세계로서 환상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다. 릴리는 현실세계 내에서 호랑이와 대면하며 호랑이는 독립된 인물로 형상화되지만, 그가 존재하는 세계관은 현실로 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환상과 리얼리티가 교차하며 현실 문제를 다루는 ‘마술적 리얼리티’(Magical Reality)에 기반한 성장서사로 볼 수 있다. 마술적 리얼리티는 ‘마술적 리얼리즘’(Magical Realism)에 근간한 개념이다. 마술적 리얼리즘은 1950년대 회화 작품의 비현실적 드로잉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작품들을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비평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상으로 문학계에 널리 확산되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 등 신화적 상상력과 역사적 현실을 결합한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마술적 리얼리즘은 현실 세계의 인과법칙에 맞지 않는 환상을 통해 현실의 본질을 표현하는 미학적 방법론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필연성 있게 묘사되어 독자들도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

『호랑이』 역시 릴리가 호랑이와 교섭하는 환상적 순간들이 상세하면서도 필연성 있게 묘사되어 있다. 릴리가 경험하는 호랑이 환상은 릴리의 심리적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때로 릴리의 인식이나 경험 수준을 넘어선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작품은 마술적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성인소설에서 마술적 리얼리즘이 환상적 장치를 통해 사회의 본질을 그려내는 이념(ism)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 소설로

서 『호랑이』는 사회 본질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부자로 등장하는 리키 아버지는 아들 리키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개인적 결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본에 예속된 존재는 아니다. 실제 릴리의 엄마는 리키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다. 리키와 친구들이 릴리 할머니를 ‘마녀’라고 부르지만, 이는 인종차별적 접근이기보다 ‘치매’ 증세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 작품 말미에 릴리는 자신이 리키와 친구들을 오해하였음을 깨닫고 사과하며 리키 역시 릴리에 대한 존중을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마술적 리얼리즘이기보다는 마술적 리얼리티로 아동 인물의 내면적 성숙을 다룬 성장서사로 보아야 한다.

릴리는 엄마, 언니 샘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 할머니가 사는 선범으로 이주한다. 할머니는 뇌종양이 걸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릴리는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에게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누구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망자와의 영원한 이별이 남는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사별은 정신적 외상을 남기며 애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숙제가 주어진다.

아직 미성숙한 릴리에게 할머니의 죽음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릴리에게 할머니와의 사별이라는 현실은 ‘낯선 두려움’(unheimliche)으로 다가온다. 낯선 두려움은 프로이트의 용어로 애니미즘 사유가 남아있는 어린이가 아직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은 합리적 현실에 노출될 때 경험하는 불안감을 말한다.²⁾ 릴리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한다. 릴리가 다섯 살 되던 해 아빠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빠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희미하기에 릴리에게 아빠는 애초에 부재한 존재로 느껴질 뿐, 사별이 극복해야 할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르다. 할머니는 릴리의 정체성에 근원이 되는 모성적 존재이다. 할머니는 릴리의 침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릴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한다. 릴리는 수줍음이 많아 ‘투명 인간’으로 자처할 만큼 존재감이 없지만, 할머니만큼은 릴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감싸준다. 그런 할머니가 질병에 걸려 아파하고 치매에 걸리며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는 사실은 릴리에게 수용하기 매우 힘든 현실이었다.

릴리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면하면서 그와 연관된 환상을 경험한다. 바로 ‘호랑이’의 환상이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표상하는 존재이다. 릴리의 무의식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 함께 옛이야기를 향유하던 기억이 ‘순수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순수기억은 베르그송의 용어로 언어나 행동의 습관을 형성하는 인위적인 습관 기억과 달리, 삶의 기억-이미지가 잠재태로 존재하여 무의식의 심연을 형성하는 이미지를 말한다.³⁾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 마르셀이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무의지적으로 떠올린 회상들이 곧 순수기억에 저장된 기억-이미지들이며, 마르셀의 무의식 순수기억의 예시이다. 릴리는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봉착하면서 순수기억 속에 내장된 할머니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

물론 언니 샘의 경우에도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합리적 세계와 들어선 존재로 할머니의 질병 및 사별 가능성을 현실로 일정 부분에서 수용한다. 릴리는 아직 합리적 세계에 완전히 입사하지 않은 어린이이며 그의 내면에는 애니미즘적 사고가 잔존해 있다. 애니미즘(Animism)은 자연은 물론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고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고 양식이다. 원시시대 인류 문화에서 애니미즘은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 양

2)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283쪽.

3)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259쪽.

식이었고 문학이나 예술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합리적 세계관에서 애니미즘은 비합리적인 사고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합리적 세계관에 온전히 진입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내면에는 애니미즘적 사유가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를 함께 듣고 자랐지만, 릴리만 현실에서 호랑이의 환상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호랑이 환상을 단순히 릴리의 심리적 현실의 표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호랑이가 릴리와 소통하면서 릴리의 경험이나 인식을 뛰어넘는 사유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릴리에게 할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할머니가 어린 시절 유리병에 가둔 이야기를 하늘에 돌려주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 봉인한 그녀의 서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며, 이야기를 돌려주는 것은 할머니가 합리적인 현실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봉인해야 했던 서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랑이와 릴리의 대화는 릴리의 인식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호랑이 환상이 릴리의 심리적 현실에 예속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작품의 절정부에서 할머니가 쓰러지고 릴리와 샘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가는 장면에서 환상적인 사건이 현실처럼 일어난다. 릴리는 호랑이 환상을 찾기 위해 ‘이야기의 집’인 도서관으로 가고 그곳에서 호랑이를 만난다. 호랑이는 그들이 병원에 가는 길을 비호한다.

호랑이가 나아간다. 마치 세상의 시산이 다 자기 것 듯 한 발뚱, 한 발, 한 다리씩 천천히. 걸어가는 호랑이 뒤로 비가 줄어든다. 와전히 안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부슬비 정도가 된다.

호랑이가 만드는 길을 제외하고 사방에서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린다.

나는 날씨의 규칙을 잘 모른다. 어쩌면 이 현상은 구름, 바람 뭐 그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것 같다. 마법인 것 같다. ..(중략)..

“호랑이가 저렇게 하는 거야?”

망설이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호랑이 안 보여.”

언니는 속삭인다. 그 목소리엔 경이로움과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아래에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호랑이』, 297-298쪽)

위 장면에서 호랑이가 앞장 서면서 릴리와 샘이 탄 자동차가 나아가는 길만 비가 잦아든다. 이는 날씨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합리적 세계에 들어온 샘 역시 그 장면을 목도한다. 물론 샘은 청소년이라서 완전히 합리적 세계에 들어선 성인이 아니기에 그러한 환상적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이 작품에서 호랑이 환상이 단지 릴리의 심리적 현실에 예속되지 않음을 확정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이 작품은 호랑이 환상을 통해 현실의 인과법칙에 맞지 않는 환상적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현실의 본질을 그려낸 마술적 리얼리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 동종서사를 채택하면서 현재형 시제(‘이다’)로 서술한다는 점이다. 서사는 ‘사건’을 ‘중계’하는 것이다. 소설이나 아동소설, 동화 등 문자서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형 시제(‘었다’)로 서사세계가 끝난 시점을 상정하여 서사를 중계한다. 동종서사를 채택하더라도, 과거형 시제로 서술하여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서사적 거리를 확보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서술한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형 시제로 서술하는데, 이는 릴리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실감나고 현실감 있게 증계하는 서술 기법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판단할 수 없게 하여 작품의 미적 특질을 높인다. 만일 과거형 시제를 택한다면,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합리적 세계로 접어들면서 성장한 릴리의 시점에서 서술하므로 합리성의 시선으로 호랑이 환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증계되었을 것이다.

2. 혼성적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

서사는 신경증이나 정신적 외상을 겪는 이들이 경험을 이해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인간이 신경증을 앓는다고 논의하였다. 그는 히스테리를 연구하면서 무의식이 억압에 기인하고, 억압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회귀하여 의식을 지배한다고 확신하였다. 억압된 기억은 꿈, 증상, 환각 등을 통해 표현되며 의식의 통제를 피해 교묘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누구나 삶을 영위하면서 특정한 기억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다.⁴⁾

그러나 도널드 스펜스, 피터 브룩스 등을 위시한 서사이론가들은 그러한 주장을 뒤집는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기억과 연상을 토대로 병의 근원인 기억(원초적 사건)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지만, 서사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복원할 과거는 없었다. 과거는 원형대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개연성 있는 서사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미학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높은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녀 환자에게 치료적 효과를 발휘하고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도록 돕는다. 프로이트는 ‘사후성의 논리’(Nachträglichkeit)를 주장한 바 있다. 원초적 기억의 회복보다는 현 시점에서 기억이 부단히 재배열되고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서사이론가들의 관점과 상통한다.⁵⁾ 이렇게 그럴법하게 구성된 서사는 환자에게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치유적 효과를 발현한다.

『호랑이』에서는 릴리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수용하며 성장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릴리는 호랑이 환상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 릴리에게 호랑이는 신비하면서도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고, 릴리는 뱃을 이용하여 호랑이를 잡을 시도까지 하였다. 그러나 호랑이 환상은 할머니가 릴리에게 들려준 옛이야기에서 비롯된 상상이다. 즉 호랑이 환상은 릴리와 할머니의 서사적 교섭 가운데 것이다. 릴리는 호랑이 환상을 통해 할머니의 삶과 문화적 정체성을 한층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의 고통(죽음)을 넘어서며 자아를 확장한다.

할머니 상실에 대한 릴리의 ‘낮선 두려움’은 반복충동으로 나타난다. 반복충동은 현실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운동을 말한다. 현실에서 경험한 정신적 외상이 수동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반복충동은 그 고통을 재연함으로써 자아가 능동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에서 릴리는 반복충동을 느끼면서 끊임 없이 서사 행위에 참여한다. 때로 할머니가 들려준 서사를 회상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서사를 듣기도 하고 언니에게 서사를 들려주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 속에 상호텍스트적으로 개입된 서사는 릴리의 반복충동의 산물이며 메타픽션적 효과를 드러낸다.

흥미로운점은 이렇게 메타픽션으로 제시된 이야기가 한국, 미국 양국의 문화적 혼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랑이』는 자전적 성장서사이다. 상상하였듯 태 켈러는 어린 시절 한국인 할머니와 침대에 누워 귀신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할머니의 서사를 듣고 자랐다. 그러한

4) 김석(2010),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2010.

5) 박찬부(2007), 『기호, 주체, 욕망』, 창비, 186-192쪽.

의식은 이 작품에서 호랑이 상상 및 서사로 표현된다. 즉 한국적인 서사적 정체성의 반영이다.

서구의 옛이야기에 여우나 늑대가 많이 등장하는 데 비해 우리 옛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호랑이는 우리 조상들과 깊은 관계를 가진 동물이다.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양가적이다. 공포스럽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러러보고 동경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갖는다. 이러한 감정으로 옛이야기에서 호랑이가 숭배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신격화되기도 하지만, 어리석고 위엄이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포악한 자가 횡포를 부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⁶⁾

그렇지만 태 켈러는 그러한 한국의 문화적 인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는 호랑이를 신비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포악하고 횡포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는다. 도리어 욕망과 지혜를 갖춘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야기 속 호랑이는 영리하고 의욕적이다. 아이들의 할머니로 변장을 한다. 아이들의 집까지 찾아간다. 아이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그에 실패하자 멀리까지 이리저리 아이들을 쫓아간다. 하늘로도 쫓아 올라가려고 시도한다.

그처럼 포기할 줄 모르고 쫓으니 나는 늘 이 호랑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고기처럼 단순한 것은 아닐 것, 그 이상일 것이라고 느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하기에 그 호랑이는 세상을 횡단하며 이 아이들을 쫓는 것일까?(『호랑이』 작가의 말, 327쪽)

태 켈러는 현대인이자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복수적 정체성을 갖는 입장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를 해석한다.⁷⁾ 그의 관점에서 호랑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의욕적이고 영리하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을 요구한다. 그러나 떡은 호랑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오누이까지 잡아먹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논의하는 ‘욕망의 끊임없는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호랑이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를 연기하며 심지어 하느님께 기도하여 줄을 내려달라고 한다. 이러한 호랑이의 모습은 분명 의욕적이고 영리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해석할 때 보통 남매는 착하고 지혜로운 ‘선한 인물’으로, 호랑이는 포악하고 횡포를 부리는 ‘악한 인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른 면모이다.

또한 호랑이는 여성 인물로 표상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원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호랑이는 자녀들을 위해 떡장사를 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 즉 모성성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어머니로 위장하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목소리가 쉬고 손이 거칠어졌다고 가장한다. 이러한 장면은 무의식적으로 호랑이를 남성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지만 태 켈러는 호랑이가 여성일 수 있다고 본다. 『호랑이』에서 호랑이는 여성 인물로 표상된다.

“안녕, 릴리?”

6)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교육론』, 집문당, 1988, 245쪽.

7) 보통 옛이야기를 현대적인 서사로 재화하는 경우 작가가 옛이야기를 ‘재해석’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태 켈러의 경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한국적인 해석을 수용했다가 이를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복수적 정체성을 가진 입장에서 할머니의 구연을 듣고 해석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해석’으로 기술하였다.

걸걸한 여자 목소리다. 마치 동물 발톱이 한지를 긁듯이 내 귀를 긁는 목소리. ..(중략)..

자동차처럼 커다란 그 호랑이가 집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너, 말을 하네.”

나는 속삭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덧붙인다.

“그리고 여자야.”

나는 곧바로 입을 꼭 다문다.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

호랑이는 비웃는다.

“늘 이런 식이지. 수컷 호랑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호랑이 하면 다 수컷이게? 인간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심한지.”(『호랑이』, 114쪽)

이러한 호랑이의 인물 형상화 역시 작가의 복수적 정체성에 기인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에서 극중 ‘호랑이’의 모티프를 얻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인식에 예속되지 않고, 가부장제 질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현대 미국의 관점에서 호랑이 인물을 창조하였다.

이 작품에서 할머니는 한국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들을 유리병에 봉인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 미국에 온 후로는 자신과 딸의 생존을 위해 억척스럽게 노동하며 살아왔다. 여기서 이야기는 할머니가 미국 사회에서 봉인해야 했던 그의 서사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녀가 나고 자란 모태로서 한국, 그 근원이 되는 서사를 유리병에 봉인하고 합리적 세계의 일원이 되어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릴리는 호랑이와의 대화를 통해 할머니가 그 서사를 해방시켜 주도록 한다. 이는 결국 할머니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억압한 이야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욕망과 무의식을 해방하고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작품의 혼성적 특성은 한국 문화를 드러내는 언어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는 할머니를 영어인 ‘grandmother’가 아닌 ‘halmoni’(할머니)로 표현한다. 리키는 릴리의 내면을 깊이 배려하지 못한 채 할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등 상처를 주었고 릴리는 진흙을 먹이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복수했다. 둘의 화해 과정에서 리키는 릴리가 할머니를 호명하는 방식인 ‘halmoni’라는 언어를 배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이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면서 실재를 폐기하고 상징적 질서에 입문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한다. 언어는 대상을 명명하고 사고하고 이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현실로 구성한다. 특정 사회적 집단의 언어는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 등이 내포되어 있다.⁸⁾ 결국 인간이 언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언어에 내포된 세계를 소유함을 뜻한다.⁹⁾

리키가 한국어로 할머니를 표현하는 과정은 미국인으로서 그가 자신을 할머니를 인식하는 방식과 릴리가 복수적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리키는 미국 사회에 지배문화인 언어가 아닌, 소수문화인 언어를 배우는 장면은 혼성성이 갖는 힘을 보여준다 하겠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8) Bruce Fink,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이성민 역, 『라캉의 주제-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18, 62-63쪽.

9) Douglas Robinson,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동문단, 2002, 160쪽.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문제적 죄책감

- 백은유의 『유원』의 경우

김정은(공주교육대학교 강사)

- | |
|----------------------------|
| I. 죄책감의 다면성과 아동청소년 문학 |
| II. 친사회적 죄책감과 문제적 죄책감 |
| III. 『유원』에 나타난 문제적 죄책감과 성장 |
| IV. 죄책감과 문학교육 |

I. 죄책감의 다면성과 아동청소년 문학

인간은 시시비비를 가리며 자신의 잘못을 문제 삼는다. 때문에 우리는 ‘호모 에티쿠스(Homo ethicus)’ 혹은 ‘호모 모랄리스(Homo moralis)’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충현, 2022:35). 이러한 표현에는 인간이 단순히 본능이나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존재라는 관점이 담겨있다.

죄책감은 이러한 인간의 윤리적 면모와 직결된 정서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인해 야기되는 감정, 곧 자의식적인 정서(self-conscious emotion)이기 때문이다(Tangney et al, 2007:347). 이는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며,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과 같이 잘못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이다(한세영, 2009:66). 즉,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하는 책임의 물음, 즉 내면적 양심의 세계와 관련”(임홍빈, 2013:28)된다. 이런 맥락에서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정서로 작용한다.

이처럼 죄책감은 자신을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라고도 일컬어진다(Tangney, 1995). 죄책감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도 죄책감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사회적 규범 습득과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며,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고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유경 외, 2002:53)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죄책감은 내면적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는 자의식적 정서로서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을 통제하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정서이다.

한국 아동문학에서도 죄책감은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죄책감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이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성장을 경험하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주로 가족 관계에서의 죄책감, 친구 관계에서의 죄책감, 사회

적 규범과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죄책감 등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아동 독자들이 자신이 행한 크고 작은 잘못을 통해 윤리적 존재로 성장하며, 자신이 속한 세계의 윤리적 질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죄책감의 친사회적 측면으로, 죄책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다.

그런데 죄책감은 다면적인 특성이 있다(한세영, 2009: 6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친사회적 정서’로 정의되기도 하지만(Hoffman, 2000), 오래도록 반성하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반응으로 접근되기도 한다(Bybee&Queles, 1998, 한세영, 2009에서 재인용). 잘 관리된 아동의 죄책감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과도한 죄책감의 경우, 그 후회와 가책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파괴적인 에너지로 흐르기도 한다.

문제는 잘 관리되지 못한 죄책감이다. 그것은 실제로 어떤 까닭으로 인해 잘 관리하기 어려운, 그래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적 죄책감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경험되는 죄책감의 모습은 다양하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래 괴로워한다. 아동문학의 독자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덕적 정서의 발달 과정 중에 있다.¹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해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 문학은 어린 독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정서적 문제나, 접해 보지 못한 정서를 이해하는 통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에서 죄책감의 친사회적 측면에 비해, 과도한 죄책감을 비롯한 죄책감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죄책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적 죄책감으로 설정하고, 『유원』(백은유, 2020)에 나타난 문제적 죄책감의 양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유원』은 언니의 죽음으로 살아남은 이이가 짊어진 죄책감과 그 이면의 정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느껴 마땅한 죄책감의 고통과 과도한 죄책감에 장악당한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친사회적 죄책감과 문제적 죄책감을 살피고, 죄책감이라는 정서에 접근하기 위한 문학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친사회적 죄책감과 문제적 죄책감

여기에서는 죄책감(guilt)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3장에서 살펴볼 죄책감의 개념과 특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접 개념인 수치심과의 변별을 통해 죄책감의 개념과 발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 죄책감의 작용을 친사회적 죄책감과 문제적 죄책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이 도덕적 과실(transgression)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자기(self)를 인식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기의식적 정서’¹¹⁾이며,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이

10)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도덕적 정서가 발달하게 된다(한세영, 2009: 66).

11) 자기의식적 정서란 자기(self)에 대한 지각과 연관된 정서로, 자기 인식과 행동 평가를 통해 경험되는 이차 정서(secondary emotion) 또는 복합 정서(complex emotion)를 의미한다. 이 감정들은

다(Tangney&Dearing, 2002). 사회적 규칙을 따르거나 잘못했던 행동의 반복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친사회적 도덕 행동의 기제가 된다. 그러나 두 정서 모두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 도덕적 정서로 바라보는 등 해당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죄책감의 수치심의 부정적 측면,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닌 정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비슷한 상황에 발생하며 분리되기 어려운 정서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Tangney et al, 1996), 어떤 연구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근원적으로 다른 정서라고 주장한다(Smith et al, 2002). 이 두 정서가 비슷한 특성을 지닐 수는 있으나,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며 정서 간에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죄책감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위(behavior)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서이다. 예를 들어, 죄책감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이다. 때문에 죄책감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자책과 후회를 경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백과 사과, 만회를 위한 행동 등을 수반한다. 반면, 수치심은 그런 잘못을 행한 주체(self)가 ‘나’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정서이다. ‘그런 잘못을 한 것이 나라니’와 같은 수치심,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부터 말미암은 수치심은 자아의 위축과 타인으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진다. 이처럼 Lewis(1971)은 이 두 감정을 평가의 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두 정서를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잘못에 대해 자기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유경 외, 2002:61).

그럼에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두 도덕적 정서가 타인을 고려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수치심은 자신의 잘못함이 공공에 드러나 본인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과 연관된다. 즉,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타인이 평가하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서이다. 그러나 죄책감은 나의 잘못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인간 내면의 양심과 관련되어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것과 연관된 정서이다.¹²⁾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즉,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자기 회한적인 고통이라면 수치심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평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정서이다. 이처럼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지만,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 초점적 정서(self-focused emotion)이며, 죄책감은 타인 초점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이다(유경 외, 2002:61).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죄책감은 첫째,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정서이며 둘째, 그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서이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의 1차 정서(primary emotion) 또는 기본 정서(basic emotion)와는 달리, 자아에 대한 인식이나 타인의 시선 및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발달 과정 중에서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1)자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 및 평가와 2)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유경 외, 2002:56-57). 자기의식적 정서는 도덕적 발달, 자아 존중감,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다.

12)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고통과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아동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유경 외, 2002). 도덕적 규범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해보다 타인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죄책감의 발생에서 더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타인 초점적 정서’를 죄책감을 규정하는 본질적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하늘은 맑건만』(현덕, 1938)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죄책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문기는 고깃간에 숙모 심부름을 갔다가 1원을 냈건만 가게 주인의 실수로 9원하고 잔돈 얼마쯤을 거슬러 받는다. 문기는 친구 수만이와 함께 공이며 쌍안경이며 갖고 싶던 것들을 사는데 돈을 써버린다. 그날 저녁, 문기는 공과 쌍안경의 출처를 묻는 삼촌에게 수만이에게 받은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다. 삼촌은 설마 네가 날 속이기야 하겠냐며 남이 준다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말라고 타이른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 오던 그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 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 만냥 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 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엇그저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낮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현덕, 1938) (밑줄: 연구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문기는 삼촌을 속였다는 행동, 그리고 삼촌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문기는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몰래 남은 돈도 돌려준다. 그리곤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현덕, 1938)함을 느낀다. 그러나 수만이는 남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이르렀다며 되려 문기를 협박한다. 문기는 결국 집에서 숙모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준다. 숙모는 아랫집 심부름하는 점순이가 훔친 것으로 알고, 점순이는 심부름 하던 집에서 매를 맞고 쫓겨난다. 문기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멧멧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자백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리고는 깨어난 병원 침대 위에서 모든 잘못을 삼촌에게 털어놓는다.

이 대목에서는 죄책감이 작용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가 잘 드러난다. 죄책감은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의 동기를 유발한다(Tangney&Dearing, 2002). 죄책감은 회피보다는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과하거나,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Tangney&Dearing, 2002). 반면, 수치심이 경험되면 숨고, 도망치며 자신이 한 행위를 취소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된다.¹³⁾ 죄책감을 만회하려던 행동 때문에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점순이가 일하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문기는 몹시 괴로워하고, 선생님께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문기는 결국 삼촌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는다.

13) 죄책감과 수치심의 발생과 관련된 근본적인 차이가 서로 다른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과정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미치는 차이에 대한 연구는 한규은 외(2016) 참조.

이러한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친사회적 죄책감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느낀 죄책감(부정적 정서)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Gross, 1998).

우리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죄책감은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죄책감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이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성장을 경험하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주로 가족 관계에서의 죄책감, 친구 관계에서의 죄책감, 사회적 규범과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죄책감 등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아동 독자들이 자신이 행한 크고 작은 잘못을 통해 윤리적 존재로 성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죄책감의 측면에서 「돌 씹어 먹는 아이」(송미경, 2014)이 서 있는 자리는 조금 다르다. 사회적 규범과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죄책감, 남들과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담겨있다. 이 죄책감은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이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연수는 자신의 행동이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엄마를 화나게 할까봐 돌을 먹지 않기로 한다.

입 속에 돌을 넣고 굴리자 연수는 돌을 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사실 연수가 돌을 처음 씹은 것은 다섯 살 무렵의 일이에요. 연수는 우연히 자신이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연수는 단단한 것은 무엇이든 씹을 수 있었는데 특히 돌을 씹을 때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하지만 엄마가 연수가 돌 씹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러 대며 입속에 남아 있던 부스러기까지 강제로 빼낸 뒤로 다시는 돌을 씹어 먹지 않았어요. 돌을 씹어 먹는 것은 왠지 아주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송미경, 2014) (밑줄: 연구자)

그러나 연수는 돌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죄책감은 더해가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 그 사람만의 은밀한 비밀은 잘못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연수는 산골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 이후에는 가족들에게도 이 비밀을 털어놓는다. 연수는 이 고백을 계기로 잘못이 아닌 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죄책감을 바로잡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해진다.

아동문학 작품 속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 죄책감과 행동에 관한 연구(Haidt, 2003)에 따르면 적정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문기와 연수가 자신의 잘못과 비밀을 끝내 고백할 수 없었다면 그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떻게 되었을까. Freud(1930; 김석희 역, 2020)는 죄책감이 과도해지면 자기 처벌의 욕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간이 점점 더 윤리적인 것을 요구받는 문명의 진보 속에서 죄책감은 매우 유의해야 할 병리적 정서라 지적한다.

죄책감은 내면적 양심의 세계와 관련된 정서라는 점에서 사람에 따라 같은 상황,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와 경향을 죄책감 경향성(guilt-proneness)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높은 죄책감을 경향성을 가졌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죄책감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적 죄책감은 스스로를 해치는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자기 비난이나 지속적인 후회, 타인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의

문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유원』(백은유, 2020)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적 죄책감의 양상을 살펴본다.

III. 『유원』에 나타난 문제적 죄책감과 성장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확하게 상상하여 사려 깊게 측정하고, 나아가 그것에 관여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능력”(누스바움, 2013: 195)을 얻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 문학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유원』(백은유, 2020)을 통해 문제적 죄책감을 겪어내는 고통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인물의 성장은 자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피할 수 없었던 불행과 자기처벌

『유원』(백은유, 2014)은 살아남은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 유원은 여섯 살 끔찍한 화재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당시 열일곱 살이던 언니 ‘예정’이 “현명한 판단”(45면)으로 아직 몸집이 작은 어린 유원을 이불로 감아 11층 창밖으로 던진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언니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고, 아래에서 유원을 받아 안아 유원의 목숨을 살린 결정적인 조력자인 아저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회복하지 못한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열여덟 살을 맞은 유원은 “그런 일을 겪은 것치고 이만하면 하자가 없는 편”(20면)으로 자랐다. (중략) 유원은 언니와 아저씨에게 온전한 감사의 마음만 느낄 수 없다. 고마움과 미안함만으로도 이미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유원의 감정은 그보다 큰 죄책감에 지배당한다. 죄책감은 생존에서 기인한다. 누군가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남았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남았다’고까지 더 가혹하게 말하는 이도 있으리라. 유원은 자신이 희생하지 않았다는 살아남은 자의 가책에 시달린다. (이하나, 2021: 204)(밑줄: 연구자)

이하나가 짚어낸 바와 같이, 유원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가책에 시달린다. 원이의 살아있음이 곧 언니의 죽음이며, 아저씨의 오른쪽 다리이다. 유원은 언니가 좋은 사람일수록, 언니의 사랑을 들을수록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니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언니는 나를 업고 다녔다고, 나를 끔찍이 아꼈다고, 나는 엄마보다 언니를 더 따랐다고 한다. 언니는 무엇이든 잘했다고 한다. 언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고들 하는데.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론가 숨고 싶어진다. (31)¹⁴⁾

14) 백은유, 유원 [ebook], 창비, 2020. 이하 직접 인용 시 괄호 안에 면수를 표시함.

화재는 그저 일어났다. 12층 할아버지가 피우던 담배꽂이가 11층 베란다로 들어온 탓이었다. 유원은 잘못된 것이 없었고, 화재는 유원의 통제 바깥에 있었다. 피할 수 없었던 불행에는 유원의 잘못이 없지만 유원은 자신의 죄책감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원의 자기 처벌은 죄책감 뒤로 숨겨야만 했던 감정들에 있다. 사고 날, 아저씨는 11층에서 떨어지는 유원을 받아 안으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아저씨는 유원의 가족에게 경제적·심정적인 보상을 강요하다시피 끈질기게 요구한다.

우리는 늘 아저씨를 환대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불쑥 나타나도 눈치를 주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부탁을 거절할 줄 몰랐다. 아저씨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그런 나에게 화들짝 놀라 버렸다. (42)

유원은 아저씨에 대한 마땅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거나 숨기려고 한다. 유원은 아저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 아저씨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저씨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아저씨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그럴수록 유원은 자신의 죄책감 이면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릴 뿐이지만, 그것은 자기혐오로 이어질 뿐,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이 이어질 뿐이다.

아저씨가 내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착취하는 방식은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특출하다. 그 근면함과 성의를 보면 아저씨의 마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끈기와 집요함은 어느 옛날 영화에서 본 섬뜩한 모성과도 닮은 것 같다. 아저씨는 나를 온몸으로 받아 낸 이후에, 나라는 존재에게 그런 모성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고 한때는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아저씨의 의도를 가늠하려고 노력한다.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기도, 점진적으로 복수하는 과정 같기도 하다. 나는 왜 아저씨의 냄새에 예민해지고, 아저씨의 말투와 사소한 습관을 판단하는지. 나는 왜 당연히 고마워해야 할 대상에게 사나운 마음을 갖는지. (45)

뒤에서 드러나지만 유원이 숨긴 것은 아저씨에 대한 증오이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말이다. 유원은 이 마음을 푹푹 숨긴 채 고마워해야만 하는 생존자이자 아저씨의 다리를 못 쓰게 한 가해자로 살아왔다. 때문에 유원과 유원의 가족들은 아저씨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유원의 부모님은 금전적 희생이라는 자기 처벌을 통해 아저씨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나는 나를 살린 우리 언니가 싫어.
나는 나를 구해 준 아저씨를 증오해. (128)

피할 수 없었던 불행에서 유원 역시 피해자이지만 유원은 언니 대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압도된 채 자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말과 반응에서 혼란과 분열을 느낄 뿐이다. 청소년이 느끼는 죄책감은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부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고에 대한 죄책감, 책임에 대한 소홀, 성취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실패로 인한 죄책감 등이 거론된다(유경 외, 2002:59). 그보다 어린 아동의 죄책감은 더 일상적이다. 부모에 대한 불복종, 물건의 파손, 과제 수행에서 성취 실패에 대한 죄책감 정도이다. 이들은 더 노력하지 못했던 실패, 피할 수 있었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유원의 고통은 가책과 후회의 죄책감이 전부다 아니다. 마땅한 감사와 언젠가 튀어나올 것 같은 혐오 사이에 있다. 이 거대한 죄책감이 자연스러운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거짓의 감정을 내세운 채 진짜 생각을 숨기는 자신으로 적당히 살아간다. 유원의 또다른 자기 처벌은 여느 아이들처럼 실수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완벽에 대한 강박, 즐거움이나 행복에 대한 단념 등으로 나타난다.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이, “사고가 없었다면 더 나태하게 살아도 됐을 것”(104)이라고, “나태하게 살면서도 죄책감을 덜 느꼈을 것”(104)이라는 말은 유연이 단념하고 고집한 평범한 유년의 자신일 것이다.

죄책감이 자기의식적 정서라는 점은 죄책감이 다시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순환된다는 점이다. 유원이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인 것은 끝나지 않는 죄책감이자 그 극복에 대한 단념이 일 것이다. 유원의 문제적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불행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 있다. 고착된 죄책감과 요구받은 정서는 타인과의 단절과 고립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 자의식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나. 죄책감으로부터의 균형과 자기수용

유원은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 살 그날 이후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아저씨의 장애, 그리고 언니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원은 “아저씨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84)고 말한다. 유원의 죄책감은 현재의 이 불행이 피할 수 있었던 불행은 아닐지에 대한 가정으로도 전개되기도 한다. 자신의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면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당당했을지 자문한다. 자신의 행동과 그날의 결과를 성찰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원은 끊임없이 이랬다면 달랐을까, 현재의 죄책감과 고통을 바꿀지도 모르는 여지에 괴로워한다.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유원은 끝나지 않는 마땅한 죄책감에 길들여져 혼자 고립된 상태이다. 학교 어디를 가도 “재, 개 아니야?”(67)라는 소리를 듣고, “‘개’란 11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개를 말하는 거겠지.”라며 당연시한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는 일상적인 행동을 한 것을 “불쑥”이었다며 후회한다. 살아남았다는 아이에 대해 사람들이 반복하는 반응이 있다. 당위적인 감사, 기적에 대한 감동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유원은 그 당위적인 감사와 빛진 것 같은 마음, 아저씨와 언니의 희생을 딛고 사는 책임감 같은 것들의 적절함을 혼자 힘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저씨의 딸 ‘수현’으로부터 비롯된다.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려는 이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으로만 바라온 내밀한 욕구를 가시화해 돌려주는 것,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은인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사과하는 것. 이 두 번의 용기를 통해 유원은 더는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원이 제힘으로 두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사는 법을 알려”(197면) 준 사람은 다른 아닌 아저씨의 딸 ‘수현’이다. (이하나, 2021:207)

이하나(2021)은 수현을 “유사 자매”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유원은 수현과의 우정을 통해

언니와 아저씨에게 느끼는 문제적 죄책감의 균형을 잡을 힘을 얻는다. 유원은 언니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다.

“나 자랑스러우라고 더 언니를 띄우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왜 나는 그런 말 듣는 게 싫지? 어찌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언니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갑자기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났다. (중략) “너보고 언니 뭏까지 행복하라고 하지? 두 배로 열심히 살라고, 그런 말 안 해?”

“해.”

“적당히 행복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배나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짜증을 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114)

유원은 수현에게 여섯 살 이후로 숨겨야만 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고맙지만은 않다는 말, “언니의 무결함과 아저씨의 흠결”(이하나, 2021:206)에 대한 죄책감이 부당하다는 말을 하며 유원은 안도한다. 그리고 수현은 그런 유원에게 선의의 대명사가 된 아버지의 “비집함, 구질구질함, 위선”(188)을 증언하고, 유원을 원망했던 과거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네 집에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유원, 네 목숨값 너무 비싸지 않냐? 좀 깎아 달라고 해.”

나는 덩달아 혼나는 것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목숨값이라니. 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수현은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다. (175)

유원은 수현을 통해 과도한 죄책감으로 잃었던 균형을 되찾는다. 자신의 숨겨왔던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거둔다.

한편, 유원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다른 상대는 엄마와 아빠이다. 유원은 엄마는 “첫아를 잃었는데 첫아이를 잃은 슬픔에 첫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다.”(134)고 말한다. 유원은 자신이 엄마에게 준 슬픔에 죄책감을 느낀다. 아저씨와의 차이점은 엄마의 사랑과 슬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적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첫 시작은 타인과의 소통과 고백이다. 죄책감의 균형은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유원은 더 이상 늘 긴장하며 후회만 하지 않고, 아저씨의 삶을 보상해줘야만 할 것 같은 책임감에만 시달리지 않는다. 언니와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과 부당함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유원은 자신을 더 이상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유원은 자기 수용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비판, 처벌을 멈추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죄책감이 과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싼 강요와 그로 인한 강박들의 기울어짐을 인정하며 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자아로의 회복은 자신의 화제가 났던 날로부터 숨죽여 살아왔던 삶을 자신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자기 존중의 인식이기도 하다.

다. 스스로 구원자 되기와 자기개선

연대를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숨겨온 감정들을 객관화하며, 고백한 유원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다. 무결한 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 나를 통해 언니를 보는 신아 언니, 무리한 것을 강요하는 아저씨와의 관계에서 마주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다. 다음에서 유원은 아저씨가 부탁하는 방송 출연을 거절한다.

“아니요, 학원 때문은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당당해지고 싶어요. 편해지고 싶어요.” (중략)
“그때, 제가 너무 무거웠죠.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리가 으스러진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무거워서, 아저씨를 다치게 해서, 불행하게 해서.”
“너…….”
“그런데 아저씨가 지금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197~98)

유원은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그 죄책감의 대상인 아저씨에게 직접 말한다. 집요하고 성실하게 보상을 요구해왔던 아저씨에게 그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담감과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다. 유원은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직면함으로써 편안함에 이르고자 한다. 아저씨는 “너, 별로 안 무거웠다. 그냥…… 사람 몸은 원래 약하다. 다 잊어버려라.”(205)라고 답한다. 유원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정해나간다. 아빠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아빠의 처신 때문에 아저씨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라고 말하며 더 좋은 방향을 위해 관계와 행동을 바로잡아 나간다.

한편, 언니의 친구인 신아에게 “나는 맨날 불안했어. 언니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191)라고 말한다. 한 번도 친구를 가져보지 못했던 유원이 수현이와 물어보기 어렵고, 대답하기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싫지는 않았어?”
“건강하던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아빠랑 따로 살게 됐으니까. 나비 효과라고 해야 할까. 가거기까지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고마워. 훨씬 사람답게 살았거든.” (181)

관계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앞으로 맞닥뜨려갈 삶의 장면에서 유원이 주체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유원은 엄마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으로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묻거나 느낄 겨를이 없었다. 유원은 엄마에게 자신이 “이미 끝난 언니의 삶을 연장시키며 보조하는 존재”(121)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유원은 아저씨가 찾아온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눈을 조용히 가려주던 엄마의 체온을 기억한다.

엄마, 엄마는 내가 언제부터 좋았어? 그때도 엄마는 말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좋았지. (중략)

엄마가 무작정 나를 믿을 때마다, 엄마의 믿음이 언니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느낀다. 이제는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216)

엄마의 애정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내고 평범한 엄마와 딸로 두 사람 사이의 믿음과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원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유원은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190) 그렇게 자신에 대한 처벌과 의심을 멈춘 유원이 자기 수용을 거쳐 이른 곳은 자기 개선이다. 유원의 자아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유원 자신의 의지이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마주한 유원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언니의 용기를 닮고 싶”다고 느낀다. 그리고 유원은 비로소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231)을 느끼며 스스로 구원한 자신을 마주한다. 유원이 바라보는 자신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두 발로 선 자아의 모습일 것이다.

V. 죄책감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

그동안 문학교육에서 죄책감은 중요한 정서로 다루어져 왔다. 도덕적 정서로서 죄책감이 학생들의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죄책감을 바탕으로,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다루는 문학교육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죄책감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죄책감을 인물의 마음 정도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통한 인물의 성장이라는 화두를 다루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죄책감뿐 아니라 문제적 죄책감 등 죄책감의 다면이 담긴 작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학교육에서는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보다 올바른 가치 체계를 재정립하고, 크고 작은 윤리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성장하는 작품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처럼 사회의 규범들을 이해하고, 도덕적 행위를 촉구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죄책감만큼,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둘째, 정서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죄책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이해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작품과 같이,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 규범과의 충돌 등에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들과 같이 자신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은 일에 대한 죄책감, 자기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한 죄책감이다. 이러한 문제적 죄책감의 관리와 극복의 어려움과 과정을 작품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하나(2021)는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알랭 바디우, 2001:5)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만약 다행히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제적 죄책감이 경험하기 어려운 정서라면 이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죄책감을 통해 서로 다른 문학적 경험과 인식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학 작품 속 친사회적 죄책감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를 자양분 삼아 윤리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죄책감으로 인해 촉발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자아가 성장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역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문제적 죄책감을 겪고 있는 인물에게 만성화된 자기비판, 책임감과 후회의 비합리성을

깨달음으로써 죄책감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 속 죄책감의 이러한 상반된 면모가 서로 다른 극복의 대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에 대한 문학 경험은 학습 독자들에게 서로 다른 유익과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다른 죄책감의 정서 교육적 가치를 꼽아볼 수 있다. 친사회적 죄책감은 타인에 대한 고려를, 문제적 죄책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그 결과로 도모할 수 있다. 친사회적 죄책감은 그것이 타인 초점적 정서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미친 고통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곧 타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도덕적 행동을 그 유익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문제적 죄책감의 극복이란, 과도한 가책과 후회로 인해 자신을 잃고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벗어난다는 것이므로 자기수용과 자기존중, 자기개선과 같은 자아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독자들의 성장에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두 측면의 죄책감에서 모두 타인이 그 죄책감이 발생되고 유지되거나 해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문학교육에서 죄책감의 정서를 가르칠 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요한 해석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치심이나 공감을 비롯하여 죄책감과 인접한 도덕적 정서들로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고와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들을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도덕적 정서를 통한 유익과 성장을 경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이차 정서의 발달의 기본 조건(Tangney, 1991)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서의 다양한 얼굴과 이면의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 특히, 유경외(2002)와 한규은 외(2016)에서는 체면 문화가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교육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문학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죄책감이라는 정서의 정면뿐 아니라, 그 이면이나 관련된 어려움을 다룸으로써 자기 세계에서의 죄책감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을 통해 어린 독자들이 자신의 죄책감을 이해하는 데 균형을 잃지 않으며 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자료

- 백은유, 『유원』, 창비, 2020.
송미경, 『돌 씹어 먹는 아이』, 2014,
이하나, 「죽음에서 삶으로 상전이(相轉移)를 추동하는 힘 :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애도하는 인물들」, 창비어린이 제19권 제4호, 2021.
현덕, 원종찬 엮음, 「하늘은 맑건만」, 『나비를 잡는 아버지』, 창비, 2009.

2. 논문 및 단행본

- 김태훈, 「도덕적 정서의 성격과 종류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8,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박은혜, 「수치의 윤리관 - 이금이 장편동화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경우」, 한국문화기술, 2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20.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유경 외,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 수치심과 죄책감」, 심리과학, 1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2002.
이충현, 「죄책감의 두 얼굴 - 프로이트의 양심 불안과 불교의 참·괴 심소를 중심으로」, 불교학 리뷰, 32,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22.
한규은 외, 「죄책감과 수치심의 역제가 도덕적 판단, 의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9(3), 한국감성과학회, 2016.
한세영, 「성과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공감 및 죄책감」, 인간발달연구, 16(3), 한국인간발달학회, 2009.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Tangney, J. P., & Dearing, R. L.,(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Tangney, J. P., Stuewig, J.,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 Rev. Psychol. 58.
Hoffman, M.(2000), Empathy a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 Quiles, Z. N. (1998). Guilt and mental health.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269-291). San Diego: Academic Press.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문제적 죄책감」에 대한 토론문

진솔(광주교육대학교 강사)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죄책감’과 관련하여 그 양상을 살피고 문학교육적 시사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갈등과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은 소설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동 성장의 플롯 구조를 위해 죄책감이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그저 통과제의 구조 속 한 단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죄책감’에 주목하며 아동의 입체적 변화와 주체적 행위를 설득력 있게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주목한 ‘문제적 죄책감’에 관한 의미 및 작품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 친사회적 죄책감과 문제적 죄책감 등의 용어를 구분하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해한 바로 문제적 죄책감은 죄책감이 지나치게 커져서 정상을 넘어설 때 스스로를 해치는 자기 파괴적 에너지로 작용하며 부정적 행동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사회적 죄책감과 다른 부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적 죄책감이 드러나는 문학 작품에서 아동청소년 인물은 자신의 죄책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내적인 갈등과 이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또는 자기파괴적인 행동이 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작품인 『유원』은 그 갈등 양상이나 결말을 보았을 때 결국 긍정적인 인물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 고립된 자아를 보여주는 소극적 인물의 모습이 ‘문제적’인 죄책감의 행동으로 극대화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추가적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둘째, 우연한 사건이나 의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죄책감과 ‘나’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죄책감에 따른 해소와 성장에 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2장에서 『하늘은 맑건만』 속 아동은 가게 주인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았고 이를 알면서도 마음껏 써버리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돌 씹어 먹는 아이」에서 주인공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본능으로 인하여 행동에 주저함이 생기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유원』에서도 주인공의 잘못이 아닌, 화재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에 관해 본인의 의도로 유발된 정서인건지, 타의나 우연에 의해 유발되었는지에 따라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할지에 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죄책감 해소를 위한 타인의 존재에 관해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늘은 맑건만』의 인용된 장면을 보며 『데미안』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도 거짓말로 허풍을 떨다가 크로머에게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는 양상이 꼭 닮았습니다. 이때 ‘데미안’이라는 미지의 조력자가 등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데미안에 의구심을 가지는 싱클레어의 모습이 나타나고 싱클레어는 그를 불신하지만 궁극적으로 싱클레어의 성장에 의미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물론 한국 작품은 아니지만, 이번 학회의 ‘글로벌리즘’ 주제에 맞춰 해외의 작품 속 선악의 구도와 죄책감의 정서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유원』을 분석하며 ‘타인과의 소통과 고

백'을 통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책감의 정서를 덜어내는 데 있어 조력자나 타인의 존재를 주인공 인물의 죄책감 해소에 꼭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주제로 유익하게 논문을 써주셔서 저 역시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가지어주기운동’과 아동문인 작사 교가(校歌) 연구

류영욱(부산대학교 박사수료)

- I. 들어가며
- II. ‘교가지어주기운동’의 배경과 전개
- III. 동요의 확장과 문화정치의 공존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교가(校歌)는 태생적으로 자유롭게 불려질 수 없는 노래였을까.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 학교의 교육 정신이나 이상, 특성 따위를 담아야 하는 당위(當爲)의 노래로 탄생하고 존재해 온 교가는 음악의 사회적 상징이나 집단 정체성의 표현에서 나아가 개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학교 내외부에서 학교 의식가(儀式歌)로서 활용되며 음악적 경험인 동시에 사회적 경험이자 사회통합 기능과 연결¹⁾된 노래였던 사실 역시 자명하다.

학교 교육의 방향성, 학교의 역사, 기대하는 인재상 등을 강하게 반영²⁾한다는 특징에서 보듯 교가는 근대 교육제도의 생성과 함께 탄생한 가장 근대적인 노래이다. 근대 초기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생겨난 서양의 곡조에 동양의 시가가 합쳐진 창가(唱歌)는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거나 고무시키는 일체감을 주는 기능 음악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찍이 서구 근대화를 추진한 일본은 메이지 신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창가를 음악교육에 활용하면서 근대 국민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공립학교의 운동회나 졸업가, 교가로 활용하였다. 또한 음악의 정서적 기능을 통한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 동화정책으로 적극 활용된 동아시아 전체 국가주의 교육체제 형성을 목표로 강과 산하 등 자연물을 이용한 통제적 수단으로 교가를 생성하기도 했다. 근대 국민을 애국심·국민문화·역사·신화 등에 의해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존재³⁾라고 정의한다면 교가가 가진 수행성의 목적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교가지어주기운동’에 주목해 한국 교가의 생성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아동문인들이 작사한 교가에 집중해 그 의미와 이면을 재

1) 이선영 외, 「학교 교가(校歌)의 언어 기호학적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3호, 인하대교육연구소, 2019, 707쪽.

2) 송윤희, 「서울시 중학교의 교가(校歌)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교육예술학회, 2014, 2쪽.

3) 박선희, 『메이지 시대의 창가 연구』, 전남대출판부, 2014, 33쪽.

조명하되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문화정치와 로컬 의식 등에 대한 함의를 고찰한다.

II. ‘교가지어주기운동’의 배경과 전개

‘교가지어주기운동’(이하 교가운동)은 일제 강점 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도 교가 제정을 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교가운동이 시작된 1968년 전국에는 교가가 없는 학교는 약 2백여개교(문교부 집계)⁴⁾에 달했으며 개교한지 2,30년이 되었는데도 교가를 갖지 못한 학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교가 통제에서 발생한 정책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39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전국 각 학교의 교가들을 점검하여 「교가인가제」를 통해 검정하였다.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한 교가인가제는 처음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다가 범위를 사립학교까지 확대되는데, 검열제도인 「보안법」, 「출판법」, 「경찰범처벌규칙」, 「범죄즉결례」, 「조선태형령」, 「조선교육령」, 「치안유지법」,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필름 레코드 인정규정」,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적성음반 일소 운동」, 「조선흥행동취체규칙」 등과 함께 「교가인가제」가 포함된 것이다. 총독부의 학교 교가의 통제는 각급 학교 교가의 자발적 제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교풍을 자랑하며 학원생활을 구가(謳歌)하는 전조선관공립소학교에 교가(校歌)는 종래로 각 학교에서 마음대로 가사의 곡조를 만들어 그중에는 소학생의 어린이로서는 정도에 너무 높은 것도 있고 또는 가사내용이 빈약하여 정조교육상에 상서롭지 못한 영향을 준 일이 없지 아니 함으로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교육령 개정에 주지를 철저히 식히기 위하여 교가에 인가제(認可制)를 설정하고 검정(檢定)을 맞지 아니한 교가는 단연 폐지하게 되었다. (중략)특히 새 교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황국신민의 정신을 고조하는 용장한 작곡을 강조하는데 ○해야 심사 후에 인가할 방침으로 장래는 중등학교의 교가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⁵⁾(강조는 인용자,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종래 공립학교에보다도 사립학교에 교가(校歌)가 만히 불려지고 잇서 독특한 학풍(學風)과 학교정신을 들어내었는데 개중에는 시대의 호흥과 맞지 않는 것이 잇는 것은 물론 교가로서는 적당치 않은 것이 만히 잇슴으로 압흐르는 이 교가에도 인가제(認可制)를 취하기로 하였다. 교가는 어디까지 학교의 정신이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짐지고 잇는 포부를 들어내야 하는 것임으로 이번 각도 학무과장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것을 압흐르는 인가제로 하자고 결정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각 학교에서 불려지고 잇는 교가를 전부 검사할 의미에서 각도 학교별로 총독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압흐로 새로 짓는 교가도 반듯이 총독부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리라고 한다.

4) 「‘교가지어보내기’ 큰 성과」, 『동아일보』, 1976.04.29.

5) 「皇國臣民精神 高調 :校歌에도 認可制, 村存서 委員會 열고 81校歌 審査」, 『매일신보』, 1939.04.19.

「校歌를 認可制로 : 새로 짓는 노래도 學務局 檢閱, 우선各學校의 노래를 提出시켜 檢査」, 『매일신보』, 1939.06.03.

총독부의 인가제는 주로 가사의 내용 지도와 통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총독부가 인지하는 현 교가의 문제상황이란 ‘빈약’하거나 ‘상서롭지 못한’ 혹은 ‘시대의 호흡’에 맞지 않는 가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총동원 시기 일제는 식민지배 통치의 도구로 좀 더 강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한 수사(修辭)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제에 의해 통제된 교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학교들이 제정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아래와 같이 일제의 통치 이념이 내재화된 교가의 생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백산 부는 바람 우리의 기상
 황해 바다 넓음은 나의 포부일세
 옛 사기 명량진은 천하의 무적
 뒤 이을 꽃봉오리 빛나는 해남동교
 나가자 우리는 대한의 일꾼
 굳센 아시아를 일어 세우자⁶⁾

해방 이후 자발적인 교가 제정 움직임도 있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된다.

本道에서 으뜸가는 初等學校로서 北國民學校가 아직 解放 후 校歌를 갖지 못하였다함은 實로 남부끄러운 일이거나 學校當局에서도 校歌選定에 오래동안 애를 써왔다는바, 今般 校歌々詩는 懸賞募集기로 되었다 하는데, 入賞은 一, 二, 三. 等까지로 今月末日부터 限으로 一般의 많은 應募있기를 바란다 고하며 入賞者에는 各々 金一封을 進呈할 것이라 한다.⁷⁾

이런 상황 속에서 교가운동은 노래동산회라는 단체에서 1967년경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노래동산회는 1960년대부터 각종 아동 음악과 관련된 대회를 주관해 왔고 1963년부터 해마다 서울교육대학 아동연구회와 5월에 ‘고마우신 선생님’⁸⁾을 선정 동화나 동요 등 아동 음악 교육에 무게를 두고 활동했다. 노래동산회는 교가가 없는 벽지 학교의 교가지어주기 운동을 무료로 벌이고 있는데 학교장 명의로 된 신청서와 교훈, 지역적 특성 등을 적어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노래동산회에 제출하면 7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교가를 지어⁹⁾주는 것으로 일간지에 간단한 알리를 실고 있다. 이처럼 초기 교가운동은 무료 봉사의 차원에서 시작된 단기 행사의 성격을 보인다.

교가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소년동아일보의 창간기념사업의 일부로 시행된 이후부터이다. 동아일보는 1968년 5월 4일자 지면에서 자매지인 소년동아일보가 창간기념사업으로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푸른 마음으로 벌였던 ‘나란히 운동’이 600만 어린이의 따뜻한 후원으로 큰 열매를 맺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한다. 주요 성과로는 불우한 학우 돕기, 일선장병 위문, 나란히 학교 어린이들의 서울 초대와 함께 ‘교가없는 산골과 섬 학교에 교가 지어주기 운

6) 양만규, 『한국의 교가 가사』, 동경, 2016, 444쪽.

7) 「校歌々詞를 北校서 募集」, 『제주신보』, 1948.02.04.

8) 서울교육대학 아동연구회와 노래동산회가 해마다 5월에 어린이 정서교육에 힘써 준 선생님께 감사하는 모임에서 비롯된 활동으로, 1963년 첫번째로 아동문학가이자 작곡가인 윤극영을 선정했다. 이후 마해송, 윤석중, 한정동, 김영일, 박목월, 이원수 등 아동문학가와 박태현, 이흥렬, 나운영, 김성균 등 동요 작곡가들로 수상자로 선정했다.

9) 「포스트」, 『경향신문』, 1967.05.27.

동'가 포함됐다. 참여 문인들로는 윤석중을 비롯해 김영일, 김요섭, 어효선, 박경중, 박흥근, 장수철, 석용원, 조재호, 오영민, 박목월, 이원수 등이 포함(1971년)됐고 이후 엄기원, 송명호 등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동아일보의 나란히 운동은 1964년 7월 16일 서울 제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서울의 변두리 학교인 영화 연주 두 국민학교와 나란히 결연한 것을 필두로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며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힘차게 발전¹⁰⁾해 왔으며 이는 당시 이미 시작된 도시와 농어촌의 심한 지역차 때문이라는 해설이 부가됐다. 또한 각급 학교가 나란히 상호이해를 깊게 하며 향학열을 북돋고,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케 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낙차를 없애도록 힘써 온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주관사인 동아일보는 운동 초기부터 일정 시기마다 기념 기사¹¹⁾를 꾸준히 게재했고 이런 흐름은 70년대 후반에 운동에 합류한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다.

나란히 운동은 유력 신문사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듯 순수한 우의(友誼)의 수사(修辭)가 아니라 당시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방위적인 문화정책의 연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 1960년대 말부터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을 펼쳐나갔다. 1968년 7월 설치된 문화공보부는 이른바 '문화재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다. 문공부의 문화개발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에 민족과 국가를 호명하는 장려 정책으로 이어졌다. 해당 정책은 특히 지역을 근대화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¹²⁾하고 1도시 1문화원 원칙에 따라 각 시군에 지역문화원을 개설하여 지역 거점으로 삼았다. 새마을 운동 등으로 지역을 근대화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 안에서 나란히 운동의 운명은 종래에는 중앙에 종속되는 기우뚱한 운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잠재한 것이었다.

이런 흐름은 1978년경부터는 교가뿐 아니라 교가까지 증명하는 운동으로 교가운동이 확장되는 상황으로 강화되었다. 문교부는 교가는 제작비를 특별지원하여 만들고 교가는 소년조선, 소년동아, 소년한국, 한국 글짓기 지도회, 한국 동요작곡연구회 등 각계 단체의 협조를 얻어 갖추게 하는 등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III. 동요의 확장과 문화정치의 공존

교가운동의 규모와 방식의 변화는 아동문학가 윤석중의 행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교가운동이 본격화된 1968년 3월 윤석중은 교가없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가를 지어주

10) 「600만 어린이...모두모두 나란히」, 『동아일보』, 1968.05.04.

11) 「「교가지어보내기」 큰 성과」, 『동아일보』, 1971.09.22.

「소년동아일보 '교가지어주기운동 100번째 경사」, 『동아일보』, 1973.02.20.

「2백교 돌파-흐뭇한 성과, 본사의 외딴섬·두메국교에 교가지어보내기 운동」, 『동아일보』, 1975.02.21.

「「교가지어보내기」 큰 성과-우의의 합창, 방방곡곡에 교가지어보내기」, 『동아일보』, 1976.04.29.

「문교부 벽지·섬 2천 6백여 국교에 교가, 교가 지어 전달」, 『동아일보』, 1978.07.04.

「전국 68개교에 교가 지어 전달」, 『조선일보』, 1978.09.15.

「상하국교에 교가」, 『조선일보』, 1978.12.06.

「교가지어주기 사랑의 운동」, 『조선일보』, 1981.08.28.

12) 천정환, 「지역성과 문화정치의 구조」, 『사이間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175쪽.

기 위해 전국 일주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려온다. 그는 농어촌이나 섬으로 가면 교가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라며 4월 14일 강원도를 기점으로 춘성, 화천, 양구 등 10개 학교에 교가를 지어 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래동산회가 선착순으로 교가를 지어주던 운동 초창기와 달리 교가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위치나 역사 등 참고 자료를 먼저 받아 기초 작업을 한 후 현지 학교와 상의해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돌아올 예정이라며 지역명 등 상세한 경로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윤씨는 작곡가 여섯 분과 힘을 모아 5개년 계획으로 전국 5백 학교를 돌며 교가를 지어줄 것이란 다. 5월에는 충북 청원, 증원 군내의 11학교를 찾고 6월에는 대전, 공주, 청양, 당진 군내 11개 학교에 지어줄 예정이고....현재 전국에는 약 5천 3백여 국민학교와 1천여개의 분교가 있지만 **노래없는 농어촌의 동심은 가난하고 메말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끝에 별다른 ‘노래나그네’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흠냄새 나는 현지에 가서 어린이들과 사귀며 자신이 벌인 어린이운동 44년 열매를 꼭 맺으리라고 다짐한다.**

교가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위치, 역사, 특색, 교훈 등 참고자료를 보내 주시면 미리 대강 지어가지고 작곡가와 함께 내려가 현지 학교와 상의해서 완성한 후 어린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물론 작사, 작곡료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노래나그네가 교가를 지어 준 학교는 윤씨가 지도하는 ‘새싹회’와 의형제를 맺는다. 13)

윤석중의 지방행을 알리는 위 기사는 그가 참여한 교가운동을 다각도로 조명할 지점을 가리킨다.

우선 앞선 장에서 밝혔듯 국가 주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교가 운동의 가능성이다. 나란히 운동의 일환이었던 교가운동은 1968년 3월 당시 5개년 계획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불과 넉 달 뒤인 1968년 7월 설치된 문화공보부가 1973년에 시작한 ‘문화재개발 5개년계획’의 성격과 궤를 같이한다는 데 주목을 요한다.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윤석중의 모빌리티는 군 단위(‘군내’)의 ‘농어촌’, ‘흠냄새 나는 현지’를 주 목적지로 실현된다. 그가 ‘노래없는 농어촌’으로 향하는 길은 서울의 저명한 아동문학과 작곡가가 무료로, 그야말로 순수한 동심을 담은 노래를 선물하는 미담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가운동을 위해 ‘노래나그네’길을 떠나는 윤석중 일행의 여정을 사명감과 우의(友誼)는 드러내며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치러진 비용은 생략하는 방식이다.

윤석중의 지향한 교가운동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확장된 동요장(場)으로서의 의미이다. 교가운동 초기부터 참여했던 윤석중은 농어촌 학교 교가 부재의 원인을 ‘노래없는 가난한 동심’으로 연결한다. 어린이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노래 또는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로 정의되는 것이 동요가 교가로 편입되기에는 사뭇 충돌의 흐름이 있어 보인다. 일찍이 ‘동요’가 조선 어린이의 현실을 자각한 결과로 어린이의 주체적 자율성, 봉건 윤리로부터 억압된 개성과 자유, 감성을 살리고자 했던 ‘방정환 시대’ 사람들의 자발적 노래 운동¹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교가와 충돌 지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집단의 정체성 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교의 특정 상징체로 존재해 온 것이 교가이기 때문이다.

13) 「윤석중 씨-노래 나그네길 교가 없는 학교 찾아 노래 지어주기 위해」, 『경향신문』, 1968.03.30.

14) 장정희, 「한국 근대 창작동요 노랫말에 담긴 근대성과 탈근대성: 주체와 실천의 문제」, 제39회 한국 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2024), 41쪽.

그럼에도 한국 동요사는 윤석중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가 없는 학교에 ‘교가 지어주기’를 하는 ‘노래나그네’가 된 일이 있었고 수많은 동요 작사가와 동요 작곡가가 무보수로 협력한 결과 교가 없는 학교는 없게¹⁵⁾되었다며 교가운동을 한국 동요계의 주요 성과로 기록하고 있다. 혼란시대로 명명할 만큼 이미 문학적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노래말 가사나 유아동시로 명목을 유지¹⁶⁾하던 동요의 활로를 교가운동에서 동력을 얻는 새로운 영역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는 해방 이후 교과서 동요와 동시의 정전화(正典化) 과정에서 나타난 윤석중 노래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윤석중은 해방기의 아협 활동에 비견되는 출판 운동을 지속하며 아동문학 확산에 힘썼고, 1956년 새싹회를 창립하여 방정환이 색동회를 통해 꾸려나가려던 어린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수립기의 국어교육과 아동문학교육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계기로 우익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시기를 맞고 이때 윤석중은 문협 아동문학분과위원장에 오르며 자연스럽게 남한 정부 교과서의 주된 필자가 된다. 해방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미 군정기와 교수요목기 국어 교과서에는 윤석중의 작품이 가장 높은 빈도수¹⁷⁾를 보였으며 이밖에 학교에서 불리는 「졸업식 노래」, 「어린이날 노래」, 「어머니날 노래」, 「운동회 노래」, 「어린이날 행진곡」 등이 모두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위해 창작된 정형시¹⁸⁾였다. 학교 안팎에서 친근했던 이른바 윤석중표 학교 동요는 각종 학교 의례에서 불리며 교가에 준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그런 윤석중에게 교가는 동심을 담은 동요의 확장된 영토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중 문학에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동요, 동심, 국가라는 세 가지 용어¹⁹⁾, 특히나 그 중 동심을 민족주의적인 동심²⁰⁾으로 볼 때 교가야말로 맞춤형 영역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무궁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 무궁화행진곡(1959) 中

맑은 바람 불어오는
시원한 터에
배우는 우리 동무 깨끗한 마음
바람과 향기조차 향내 풍기는
청량 청량 우리 청량학교
- 서울 청량국민학교 교가 中

윤석중이 작곡한 동요 <무궁화행진곡>은 전쟁의 여파가 있던 50년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가주의적 메시지가 강한 가사의 특징을 가진다. 그에 비해 서울 청량국민학교의 교가는 교명에서 착안한 운율을 살리되²¹⁾ 어떤 상징²²⁾이나 이념도 없는 가사로 구성하고

15)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159쪽.

16) 김용희, 「윤석중의 동요문학과 시 의식」, 『방정환연구』 3호, 방정환연구소, 2020, 29쪽.

17) 최은경, 「교과서 동요·동시 정전화(正典化) 연구」, 『문학교육학』 제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467쪽.

18)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세계적인 동요시인 윤석중』, 시아북, 2021, 134쪽.

19) 김제근, 「윤석중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13, 105쪽.

20) 김종현, 「해방기 윤석중 동요 연구」, 『우리말글』 28집, 우리말글학회, 2003, 16쪽.

21) “금이야 옥이야”(서울 금육국), “동동 동쪽에는 북북 북쪽에는”(서울 동북국) 등 교명을 이용한 작사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아동문학가·문인들의 가사와도 차별점을 가진다.

화계국민학교 슬기의 터전
내일의 새 일꾼이 여기에 있다
- 전남 고흥 화계국민학교 교가 中
(박화목 작사)

새나라에 꽃 피우려 여기 모이여
착하고 굳세게 같이 배운다
- 경남 밀양 무안국민학교 교가 中
(박경중 작사)

푸른 산 맑은 시내 거울삼아서
곱게 곱게 자라며 바르게 살자
우리는 나라의 희망이란다
고이고이 가꾸자 우리의 서후
- 경북 안동 서후국민학교 교가 中
(김영일 작사)

우리네 이상은 무럭무럭 자라나
바다 끝 땅의 끝 하늘 끝까지
신석 신석 빛나는 셋별
비취라 밝혀라 조국의 앞길을
- 서울 신석국민학교 교가 中
(주요한 작사)

윤석중의 가사와 달리 박화목, 박경중, 김영일 등 아동문인들의 가사는 대부분 국가주의적 표상이나 교육 목표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 새 일꾼, 새 나라, 조국 등 민족주의 속 후속세대를 호명하는 가사가 대부분 포함된다.

윤석중 문학이 지니고 있는 명량성, 도시적 감각, 유년지향의 요소²³⁾ 역시 일부 교가 가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시내 학교의 교가의 가사와 지역 학교의 교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서울시내)의 학교 교가 가사는 윤석중의 동심의 주요 요소로 사고했을 놀이, 그리고 학교생활의 덕목인 학습(공부)을 담고 있으나 지역 학교 교가의 가사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며, 특히 의미의 중심이자 가지적인 상징을 다수 소유하기 마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²⁴⁾이 될 수 있는데 윤석중 교가에서 도시의 아이들은 공부와 능률을 지향해야 할 아이들로 전형화된다.

가 다수 존재한다.

연대 내용	1895-1920		1921-1940		1941-1960		1961-1980		1981-2000		2001-2012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지	12	18.8	17	20.7	42	19.3	108	22.2	43	21.8	43	21.8
덕	15	23.4	16	19.5	53	24.3	108	22.2	49	24.8	49	24.8
체	11	17.1	13	15.9	40	18.3	100	20.5	37	18.8	37	18.8
총	12	18.8	16	19.5	31	14.2	74	15.2	28	14.2	28	14.2
상징	14	21.9	20	24.4	52	23.9	97	19.9	40	20.3	40	20.3

22) 승윤희의 연구(『서울시 초등학교 교가(校歌)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3권 제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3, 702쪽)에서 보듯 교가 가사의 내용은 지, 덕, 체, 총 등의 교육목표와 상징 단어로 구성된다.

23)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세계적인 동요시인 윤석중』, 시아북, 2021, 54쪽.

24) 이-푸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78쪽.

서울에서 제일가는
우리학교 리라학교
공부잘해 성-적도
제일높이 올리리라
- 서울 리라국민학교 교가 中

굴속에 있는 절 산방굴사
물 속의 저 바위 본을 받아
나란히 우리도 서로 돕자
- 제주 사계국민학교 교가 中

공부를 잘하나 잘들 노나
복악이 우리를 굽어본다
- 서울 교동국민학교 교가 中

뒤에선 한라산 바람 막고
앞에서 범섬이 지켜주네
언제나 그 고마움 잊지 말자
- 제주 서귀중앙국민학교 교가 中

공부할 때 운동할 때
빛나는 모습
앞만 보고 나가는
대한의 모습
- 서울 아현국민학교 교가 中

희망의 운암봉을 우러러보며
흑산흑산 일천 어린이
외딴 섬에도 우리들이 자란다
- 전남 흑산국민학교 교가 中

반면 지역 학교 교가의 아이들은 공부나 놀이, 운동의 모습은 실종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표상과 함께 협동과 선한 덕목만이 강조되고 있다. 정체성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명은 집단의 정신적 자산을 대표하고 구성원에게 꾸준히 집단의식²⁵⁾을 이식할 수 있다. 교가운동의 특성상 작사가가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인 지명은 타자의 관점에서는 전경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런 한계 속에서 부르디외가 아비투스(habitus)라고 불렀던, 의식적으로 겨냥할 필요 없이 목적에 맞춰 규제되고 적응될 수 있으며, “의식적 지휘의 산물이 아니면서도 집단적으로 조화될 수”있는 “원리, 실천, 재현”²⁶⁾에 교가의 가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푸른 윤기를 뿜는 문화 자체는 곧 적과 싸우는 무기 아닌 무기가 되는 것²⁷⁾처럼 아동문인들의 교가 가사와 교가운동의 이면에는 문화정치의 역학이 존재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정치라는 용어는 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중앙 대 지역의 정치적 작용을 의미하며 중앙과 지역에 대한 문화정책을 통해 수행되는 정치권력의 작용은 지역성과 상호작용하며 그것을 변화²⁸⁾시키는 아비투스의 침범이라는 측면에서 교가에서 표상하는 지역은 더욱 비상(非常)한 문제가 된다.

문교부는 4일 오전 10시 유관순기념관에서 국민학교 교가 교가 전달 및 아동결연식을 갖고 교가가 없는 8백 12개 국민학교와 교가가 없는 1천 8백 42개 국민교에 교가와 교가를

25) 윤지환, 「교토국제고 가사를 통해 본 ‘동해’ 지명의 중층적 문화유산」,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2022, 120쪽.

26) 피터 애디, 『모빌리티 이론』, 앨피, 2019, 280쪽.

27) 박종화, 「중시되어야 할 문화정책」, 『예술원보』(1960.9) 8-9쪽->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17, 215쪽에서 재인용.

28) 천정환, 「지역성과 문화정치의 구조」, 『사이間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165쪽.

만들어 전달하는 한편 이를 전달받기 위해 참석한 도서 벽지 국민교 어린이 3백 58명은 서울 시내 국민교생 3백 58명과 아동결연을 맺었다.

(중략) 이날 전달식에서 박찬현 문교장관은 치사에서 “어린이들은 이번에 전달받은 교기와 교가를 통해 애교심을 기르고 나아가 애향 애국심을 복돋워 나가자.”고 당부했다.²⁹⁾

정부와 매체에서 다루는 지역의 상(象)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 1978년 교기, 교가 전달식에서 국가 권력을 대리한 문교장관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기와 교가를 수여한 후 당부한 것이 애향 애국심이라는 점에서도 문화정치의 실현으로 교가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IV. 나오며

29) 「문교부 벽지·섬 2천 6백여 국교에 교기, 교가 지어 전달」, 『동아일보』, 1978.07.04.

참고 문헌

1. 자료

양만규 편저, 『한국의 교가 가사』 I. 초등학교 편, 동경, 2016.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제주신보』

2. 논문 및 단행본

- 김용희, 「윤석중의 동요문학과 시 의식」, 『방정환연구』 3호, 방정환연구소, 2020.
김제곤, 「윤석중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13
김종현, 「해방기 윤석중 동요 연구」, 『우리말글』 28집, 우리말글학회, 2003.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
문학회, 2017.
박선희, 『메이지 시대의 창가 연구』, 전남대출판부, 2014,
승윤희, 「서울시 중학교의 교가(校歌)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교육예
술학회, 2014.
양만규, 『한국의 교가 가사』, 동경, 2016.
이선영 외, 「학교 교가(校歌)의 언어 기호학적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3호, 인하대교
육연구소, 2019,
이-푸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윤지환, 「교토국제고 가사를 통해 본 '동해' 지명의 중층적 문화유산」, 『대한지리학회지』 제57
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2022
장정희, 「한국 근대 창작동요 노랫말에 담긴 근대성과 탈근대성: 주체와 실천의 문제」, 제39
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2024).
천정환, 「지역성과 문화정치의 구조」, 『사이間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최은경, 「교과서 동요·동시 정전화(正典化) 연구」, 『문학교육학』 제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피터 애디, 『모빌리티 이론』, 앨피, 2019.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세계적인 동요시인 윤석중』, 시아북, 2021.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교가지어주기운동」과 아동문인 작사 교가(校歌)에 대한 토론문

이운영(한국교원대)

선생님께서 1960년대 후반 교가지어주기운동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에서 교가가 문화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동문학가 윤석중과 그 외 문인들이 작사한 교가가 단순한 교육적 활동을 넘어 국가주의적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기능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으며, 선생님의 통찰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며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아동문학가의 교가운동 참여 동기에 대한 다각적 해석

먼저, 아동문학가들의 교가운동에 참여한 동기에 대한 다각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아동문학가들이 교가운동에 참여한 동기를 주로 문화정치적 목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심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이상과 문학적 사명감 역시 그들의 참여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60~70년대 한국 사회는 국가 재건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문학가들이 문화정치에 대한 동조보다는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가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교가운동 참여 동기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명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교가운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교가운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교가운동이 문화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한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가운동이 그 당시 학생들에게 미친 교육적 영향 또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교가는 동요와 동시의 보급, 지역 학교의 정체성 확립, 교육적 자긍심 고취 등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가가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것과 같이, 문학 교육 도구로 기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교가운동의 공과를 함께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교가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윤석중의 교가운동에서 도시-농촌 교가 차이에 대한 근거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교가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윤석중이 작사한 교가에서 도시 학교의 교가는 공부와 능력을 강조한 반면, 농촌 학교의 교가는 협동과 덕목을 중시한 것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러한 차이를 아비투스론 해석하여 윤석중의 문화정치적 의도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도시와 농촌 교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제시하였으나, 이를 문화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맥락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당시 윤석중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교가지어주기운동이 단순한 교육적 활동을 넘어 문화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교가와 아동문학, 그리고 문화정치의 상관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교가운동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탈주 서사 연구

- 2010년 이후 작품 중심으로 -

이현숙 (서울 교대)

목 차

1. 머리말
2. 탈주 서사와 탈주하는 주체로서 아동
 - 2.1. 탈주 서사의 의미와 특징
 - 2.2. 저항 주체로서 탈주하는 아동
3. 201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소설의 탈주 서사 분석
 - 3.1. 탈주하는 아동의 형상
 - 3.2. 탈주를 유발하는 상징계의 질서
 - 3.3. 서사 결말에서 주체의 탈주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소설에서 탈주하는 주체로 드러나는 아동의 형상을 분석하고 탈주를 유발하는 저항의 대상인 상징계의 질서를 살펴봄으로써 탈주 서사의 특성을 개괄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중 갈등의 해결 국면이 기존 성장 서사와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들이 어른 세계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성년 주체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원래 위치로 복귀하지 않거나 기존 가치, 규범의 수용을 거부하는 결말을 분석한다. 미성년 주체의 위치란 부모의 훈육과 양육이 병행되는 가족 내 자녀의 수동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한국 아동문학의 경우도 동심천사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아동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근대 사회를 모태로 하는 한국 아동문학은 식민지 시기를 거치는 특별한 상황에서 ‘현실’에 무게를 둔 어른의 요구를 반영한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아이들에게는 기존 가치 규범에 대한 일탈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았으며, 아동문학 작품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아동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인고와 헌신의 결말을 요구받았다.¹⁾ 이로 인해 작품 내 자아는 세계와 대립하지 않는다. 아동의 자아는 세계로 들어가거나, 세계와 화해하며 성

1) 원종찬. 아동문학의 주인공과 아동관에 대하여. 창비어린이, 7(2), 2009. 26-41쪽.

장해 간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부딪치는 갈등에 반항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조화를 모색한다. 작품을 읽는 독자로서 아동 역시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세계 안에서 머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동화의 소설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다양성을 내세운 작품에서 기존 가치체제와 타협을 거부하는 주체적 아동의 형상을 그리는 새로운 흐름이 감지된다. 아동을 타자가 아닌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근대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로부터의 탈주를 통해 서사의 스펙트럼이 확대되는 작품이 증가²⁾되고 있다. 선하고 순진한 성정에 갇혀있던 아동상이 해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공 아동은 갈등과 불화 속에서 성인의 세계와 일체화된 규범을 수용하며 종국에는 세상 안으로 돌아오는 기존의 타협안을 거부한다.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도모하는 아동은 성인 세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경계 선상에서 자신들의 갈 길을 모색한다.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억압하는 성인의 규범에 대항하고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일탈과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는 모습³⁾이 발견되는 것이다.

본고는 성인의 세계 편입에 저항하는 아이들의 일탈을 '탈주'라 정의한다. 탈주하는 아동이란 세계와의 화해를 거부하며 어른에 의해 설정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아동이다. 수동적인 아동 되기를 거부하며 기존 사회의 규범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독자적인 주체다. 이는 '교육'이라는 커다란 함의 아래 아동의 성장을 표방하는 아동문학 작품에서 예측 가능한 선택의 결과를 외면하는 소위 문제적 아동을 의미한다. 기존 아동문학에서 경계 바깥의 아이는 소수자이며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주하는 아동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문학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구조와 저항 주체로서 아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아동청소년 소설 중에서 결말에 대한 해석이 탈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권력에 저항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오이디푸스 구조)는 성인의 세계이자 문명인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문명화(세계에 대한 적응과 편입)되지 않은 원시인이나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적대감이라는 양가적으로 동요하는 심리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⁴⁾ 아버지로 은유되는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위는 탈주 서사의 중심 사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성인 세계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결말을 가진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들 작품에서는 사회의 획일화된 규범과 이분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반항의 몸짓을 보여주는 행위 주체로서의 아동이 전면화된다. 대상화된 신체의 속박으로부터 과감히 빠져나오는 아동, 유용한 존재 되기를 거부하는 아동, 가족의 의미를 재고하는 아동의 이야기로부터 탈주 욕망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탈주를 통해 세계 내에서 작동하는 아동에 대한 억압 기제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성장소설로서 의미를 가지는 서사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장소설은 실천적 차

2) 유휘경. “힘의 관점에서 살펴 본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문학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20. 15-16쪽.

3) 유휘경. 위의 논문, 2쪽.

4)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105쪽.

원과 인식적 차원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서사 모형을 가지고 있다. 실천적 차원이 강한 작품은 주체의 행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이고, 인식적 차원이 강한 작품은 주체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⁵⁾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이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갈등을 겪은 후 세계에 대한 변화된 인식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인식적 차원의 변화와 저항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로 편입을 거부하는 실천적 차원의 탈주를 유형화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작품은 다음 표와 같다.

번호	분석 대상 작품	연도	작가	아동·청소년 주체의 특징
1	다이어트 학교	2012	김혜정	획일화된 체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동
2	몬스터 차일드	2021	이재문	사회의 잣대와 편견으로 소외되는 아동
3	페인트	2019	이희영	부모를 골라야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소년
4	가짜 모범생	2021	손현주	엄마의 집착과 강요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

2. 탈주 서사와 탈주하는 주체로서 아동

2.1. 탈주 서사의 의미와 특징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문화권의 가치 체계, 신념,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아동의 성장으로 볼 때 저항 없이 수용하는 아동은 무난하게 사회에 적응한다. 하지만 아동성장서사에는 어른들의 세상을 거부하는 아동들의 이야기 역시 ‘반성장 서사’로 자리한다. 성장의 과정이 상상계에서 벗어나 상징계로 진입하는 경험이라 할 때, 상징계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분열과 방황을 겪는 과정 또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⁶⁾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해진 동화의 소설화 경향에 발맞춰 기존 체제를 거부하는 아동문학의 인물들이 조명된다. 반성장 서사의 등장인물이 기성 사회의 경쟁에 의한 피해자로 자본과 권력의 질서에 반항하는 인물로 형상화⁷⁾되는 점을 고려하여 탈주 서사에 대한 해석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법을 통한 ‘근친상간 금지’가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욕망을 좌절시키고,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결여’된 욕망을 본성으로 하는 주체를 탄생시켰다.⁸⁾ 사회 속에서 법은 불가능한 욕망에 대해 금지를 내리고, 주체는 이 금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심리적으로 억압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억압을 통해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는 아이는 욕망의 결핍과정을 보내며 사회의 상징적 질서에 진입한다.⁹⁾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는 정신분석학에서 정의한 결핍에 기인한 욕망을 다르게 해석한다. 욕망은 무엇인가

5) 최현주. 위의 논문, 141쪽.

6) 이인화. 「청소년 소설에서 ‘성장’의 의미와 범주」, 어린이와 문학, 2011년 8월호.

7) 김종현. 「青少年小説의 現實反映과 人物의 內面 成長」, 아동문학평론, 34(4), 2009. 68쪽.

8) 김상환, 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414-415쪽.

9) 연효숙. 「들뢰즈, 가타리의 분열분석에서 억압과 무의식의 문제」 철학연구, 121, 2018. 97-99쪽.

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힘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생성의 욕망인 것이다.

하지만 욕망은 고대 사회부터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현대 사회에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자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을 코드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욕망은 특정한 배치에 의한 결과인데 특정 사물의 접촉이나 사실을 자기 안에 포섭시켜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영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배치에 놓여있는 주체들을 일정한 질서 속에 주어진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통제하는 코드를 발생시키는 것을 들뢰즈는 권력이라 보았다.¹⁰⁾

욕망이 역동성과 생성의 힘을 상실하고 특정한 배치 속에서 흐름이 고정되어 일정한 방향성을 갖추게 될 때 영토적 배치가 일어난다. 이런 영토화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탈영토화'를 시도하는 유목민의 삶이 들뢰즈가 강조하는 이상적인 삶이다. 유목민은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격화된 배치, '보편적' 또는 '정당성'으로 도모되는 획일화를 거부하고 이런 영토에서 탈주함으로써 새로운 배치를 통해 욕망의 생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다.¹¹⁾ 이러한 노마디즘적 사유는 들뢰즈의 선적 사유로 이어진다. '선적 사유'란 처음과 끝이라는 출발점이 사라져, 이 선이 어디든 흐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사유이며,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한다.¹²⁾ 들뢰즈는 점을 통과하는 모든 요소들의 획일적 수용을 강제하는 선과 개개의 분자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유연한 선, 그리고 기존의 선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성분, 즉 주어진 관성적인 운동에서 벗어나려는 성분을 탈주선이라 정의한다.¹³⁾

탈주선은 억압되고, 코드화되며, 차단당하는 삶의 흐름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탈주선은 억압적 사회의 규준들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코드를 해체한다. 약호화, 정착, 구조, 조직화 등에 대한 거부와 친숙한 것들의 해체를 기반으로 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은 탈주선의 사상과 실천이다. 탈주선은 "새로운 삶의 형태"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이고 전복적인 흐름이다.¹⁴⁾ 노마디즘의 사유는 새로운 탈주선의 사유를 찾는 것이며, 결국 노마디즘이란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는 일체와 관련된 태도'라 할 수 있다.¹⁵⁾

본 연구는 성인의 세계 편입에 저항하는 아동 주체들의 이탈을 탈주라 정의한다. 성인 세계는 주어진 코드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저항하는 아동 주체는 유목민적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억압적인 사회 규범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상징계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정착민'으로 살아간다. 제도화된 배치에 순응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경쟁기계'¹⁶⁾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탈주하는 아동은 기존

10) 류미향. 「부정적 교육열로부터의 탈주와 아동의 교육권 찾기: 들뢰즈와 불교 욕망론이 주는 시사점 탐구.」 아동과 권리, 15(4), 541-561. 2011. 547쪽.

11) 류미향. 위의 논문, 548쪽.

12) 김지선. 「탈주문학으로서의 델러웨이 부인」 ATE 5.- (2015): 3-22.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13) 이진경.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02, 599-619쪽.

14) 정형철.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과 동양적 사유의 방식.」 비교문학 38. 171-201, 2006, 187-188쪽.

15) 김태현. 위의 논문, 4쪽.

16) 들뢰즈의 관점에서 욕망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기계'를 생산한다. 여기서 '기계'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생명이나 유기체와 대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접촉하여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이진경. 위의 책)

욕망은 '기계'를 통해 작동하는 의지로 기계로서 존재하며 기계를 통해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여 현실적인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 이때 접촉하는 항에 따라서 다른 기계가 되고 다른 욕망이 작동되면서 끊임없이 유목적인 흐름이 생성된다.

의 욕망을 중단하고 다른 것을 생산하는 다른 기계 ‘되기’¹⁷⁾를 시도하며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낸다. 본고의 탈주하는 아동은 노마드적 사유의 주체로 사회적 지배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능동적 주체다. 또 탈주하는 아동의 사유는 경계횡단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탈주선적 사유다.

아동문학의 성장 서사에서 탈주선은 인물이 기성세대의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⁸⁾ 본고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소설의 탈주 서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탈주 서사란 아동청소년 인물이 상징계의 질서로 대표되는 성인 사회의 억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열린 결말의 성장 서사다. 상징계의 질서는 사회체제의 법과 규범, 언어가 지배하며, 당대 사회에서 시행되는 광범위한 규율과 규칙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은 ‘영토화’된 사회에서 코드화를 통해 욕망을 통제당한다. 하지만 탈주 서사 속 주인공은 탈주를 통해 기존 가치, 규범의 수용을 거부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일상성의 변화된 양상이며 사회화 과정의 이탈을 통한 저항의 표현이다.

아동성장서사와 구분되는 탈주 서사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이야기의 구조상 탈주 서사는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 보편적인 성장 서사 유형은 아동 인물이 성장의 고통을 의미하는 통과의를 거쳐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는 입사담의 구조를 가진다. 아동이 능동적으로 주체성을 자각하는 성장 서사는 주인공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정체성을 깨닫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¹⁹⁾ 고난을 극복하고 성인 세계에 안착하는 아동의 모습은 독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야기는 행복한 닫힌 결말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탈주 서사는 인물이 사회화되는 과정 즉, 상징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야기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결말을 맞는다. 열린 결말은 아동이 겪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거나, 해결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²⁰⁾ 상징계 규율에 대한 전복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주 서사의 열린 결말이 가지는 전복성은 아동 주체가 자아 분열과 대립의 고통을 거쳐 내면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²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탈주 서사에서 아동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갈등의 양상이 전면화되는 대립 관계다. 이때 주인공은 세계와 화합하지 않는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탈주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탈주 통한 저항은 도피가 아니다. 이들의 탈주는 억압 기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경계를 해체하기 위한 주체성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에게 탈주란 순간마다 조건마다 달라지는 ‘나’들로 우리의 삶을 변이시키길 추구하는 흐름의 지칭이며 탈영토화의 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류미향. 위의 논문, 547쪽.

17) 들뢰즈의 주체는 인간을 하나의 인격으로 수렴하는 통일된 주체가 아니라 다양체로 기능하는 주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안에 내재된 모든 다양체들의 움직임인 ‘생성체’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생성’은 전통철학의 존재 ‘-이다’가 아닌 ‘-되기’로 구분된다. ‘생성’은 문학 안에서 ‘-되기’로 구체화된다. 들뢰즈의 ‘되기’는 자기 동일적인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확고한 것에서 뿌리박거나 확실한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있다고 생각하던 근거에서 벗어나 탈영토화 하는 것이다.

정인탁. “오규원 시 연구- 탈주와 생성의 노마드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5. 27쪽.

18) 김태호, 강동희. 위의 논문, 61-80쪽.

19) 김태호.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24쪽.

20) 심선연. “현대 아동소설의 열린 결말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7. 75쪽.

21) 심선연. 위의 논문, 70쪽.

방향으로 열린 창조와 생성이 흐름을 지칭한다.²²⁾

세 번째로 탈주 서사는 전반부의 결핍, 출발, 분리가 후반부의 충족, 회귀, 결합으로 이어지는 이항대립적 구조양상을 보여주지²³⁾ 않는다. 각 항의 대립적 범주 설정이 불가능하다. 탈주 서사는 어른의 권위와 규율의 압박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주체가 고난 극복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후반부의 성인 세계의 회귀나 결합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성인의 권력을 전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착화된 관습과 규율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게 된다. 또는 아동청소년 주체의 강력한 행동의 의지에 따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뛰쳐나가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성 사회를 비판한다.

2.2. 저항 주체로서 탈주하는 아동

앙리 르페브르는 현대 사회를 과잉억압 사회로 분석한다. 과잉억압 사회는 상품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상생활에 억압과 강제의 기제가 작동하는 사회다.²⁴⁾ 르페브르에 따르면 잠재된 상태의 폭력과 만연한 공포, 구성원들에게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사회는 '테러리스트 사회'다²⁵⁾. 현대는 소수 명문대에 진학해야 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와 근대적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규율권력이 교육의 테러리즘으로 작동한다. 규율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²⁶⁾ 또한 규율은 유행을 따라 육체마저 상품화하며, 일상을 지배하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되는 문화적 테러리즘을 유발한다.²⁷⁾ 미디어에 노출된 날씬한 몸을 좇는 현대인의 몸 담론에서 뚱뚱한 몸은 비난의 대상이자 관리 대상이다. 몸 담론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잣대로 작동한다. 정규분포적인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상인으로, 평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이 손에 넣거나 빼앗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간직하거나 멀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불평등하고 유동적인 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사된다.²⁸⁾고 주장한다. 이는 대타자인 아버지 권력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상징계에 들어와 길들여지는 주체를 규정하고 욕망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성을 가진다. 아버지의 권력은 당대 사회를 억압하는 미시적 규율 권력으로 미성년 주체들이 세속의 질서에 따라 사회적 관습을 내재화하는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별 탈주를 유발하는 억압 기제와 저항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이진경. 위의 책, 425쪽.

23) 최현주. 위의 논문, 21-22쪽.

24) 최효찬.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24쪽.

25) H.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과랑, 2005, 277쪽.

26) M.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1994, 217쪽.

27) H. 르페브르. 『모더니티 입문』, 이종민 옮김, 동문선, 1999. 269쪽. 최효찬. 위의 논문, 35쪽에서 재인용.

28) M. 푸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역, 나남, 2010, 110쪽.

분석 대상 작품	억압 기제	탈주하는 주체의 형상
다이어트 학교	미디어에 노출된 날씬한 몸을 욕망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구조	대상화된 몸 담론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몸의 주체가 되는 아동
몬스터 차일드	괴물성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에 규범을 저해한다는 인간 중심의 배타적 인식과 정상담론	혼종적 정체성을 가졌으나 괴물의 모습을 수용하며 각성하는 아동
페인트	자신들과 출신이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고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차별 행위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판하는 청소년
가짜 모범생	엄마의 교육 학대를 통한 학벌주의 강요와 강박적 엘리트주의	교육 학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청소년

3. 201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소설의 탈주 서사 분석

3.1. 탈주하는 아동의 형상

탈주 주체로서 아동의 형상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성의 내면화를 강요받는 아동이다. 이들은 사회가 원하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욕망을 억제하고 본성을 감춰야 한다. 또 사회가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인 찍은 변신하는 몸을 감추기 위해 갈등하는 아동이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아동이다. 이들은 일방적인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고통에 처한 청소년이다.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갈등하는 아동이다. 이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논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다.

대중은 시각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몸이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할 때, 정상이라 판정한다. 몸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적인 몸의 주체가 아니라 몸을 대상화하는 사회적 담론이다. 사회의 기준이나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신과 몸을 갖추고 있어야 정상성의 분포에 들어갈 수 있다. 정상성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규범화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이때, 규범은 내재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의 사회적 실천에 따라 만들어진다. 즉 규범적인 신체는 사회적인 몸일 때 실현되는 데, 규범화된 신체의 효과는 몸을 순종적이고 길들여진, 사회적 몸으로 만드는 과정 전체에 있다.²⁹⁾ 정상성의 내면화를 강요받는 아동은 사회가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욕망을 억제하고 본성을 감춰야 한다.

우리의 몸은 사회문화적 담론에 지배받는다. 미디어 매체에 포장된 날씬한 몸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고, 현대인은 그 기준을 좇기에 급급하다. 보여지는 몸은 주체이지만 동시에 대상이다. 타자화된 몸이란 자신을, 몸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에게 보이는 수동적 대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³⁰⁾ 타자화된 아동의 몸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단된다.

29) 임지연, 서윤호. 「한국 사회의 규범화된 몸 비판과 인정이론적 전환 모색」, 아시아문화연구, 52, (2020), 97-125. 104쪽.

시각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몸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뀌어야 한다. 사회가 인정하는 몸의 변화를 거부하는 아동 주체가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김혜정의 장편소설 『다이어트 학교』를 들 수 있다.

『다이어트 학교』의 주인공 홍희는 20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 학교에 스스로 입학하는 중2 여학생이다. 뚱보 돼지라는 별명을 떨쳐내고 반드시 59kg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홍희에게 뚱뚱한 몸은 치욕 그 자체다. 살을 빼겠다고 결심한 홍희는 '마주리 다이어트 학교'에 들어간다. 날씬한 몸을 위해서는 냉혹한 음식과 개인의 자유는 포기해도 좋다는 의지를 다진다. 그러나 다이어트 학교가 정한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돼지다. 하지만 사람이 될 거다!' 라는 구호를 외쳐야 하는 인격적인 모욕을 견뎌야 한다.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 벌칙으로 저녁을 굶거나, 독방에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인격이 말살되고, 극한의 고통을 동반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홍희와 아이들은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고민하게 된다.

홍희의 자각은 친구들과 함께 다이어트 학교에서 도망치는 탈주로 이어진다. '새로운 몸'을 꿈꾸던 홍희에게 탈주는 대상화된 몸 이전에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 회복을 의미한다. 뚱뚱한 사람은 사람 취급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시되는 학교의 시스템 안에서 '보이는 대상으로서 나의 몸'이 아닌 '뚱뚱한 몸을 가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하여' 수동성을 거부하고 능동적인 삶으로 자신을 끌고 나가는 첫 발걸음을 뜻한다.³¹⁾ 탈주를 통해 다이어트 학교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뒤, 홍희와 친구들의 진짜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탈주 주체로서 홍희의 다이어트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홍희에게는 마른 몸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세속의 잣대를 더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바로 이점이 탈주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이 뒤섞인 혼종적 괴물은 사회에서 추방되어 법적 권리를 상실하거나,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배제되며, 온전한 인간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괴물로 간주되어 멸시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³²⁾ 근대 사회는 인간을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시선으로 구분한다. 이는 정규분포적인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상인으로, 평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규율적 권력'을 바탕으로 근대 사회가 인간들을 도태·규격화·등급화·집중화시킨다는 푸코의 주장³³⁾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과 동물의 혼종성을 가진 괴물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낙인찍힌다.

이재문의 『몬스터 차일드』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신하는 아동들이 등장한다. 괴물로 변신하는 아이들은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 증후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끊임없는 감시 대상이 된다. 어린아이를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Monster Child Syndrome)'이라 부르는 이 질환은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며, 발작을 일으킨 뒤에 온몸에 털이 나고 몸집이 커지며 힘도 몇 배나 강해지는 신체 변이가 일어난다.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의 아이들은 인간과 동물이 섞

30) 김종갑. 「한국 사회의 타자화된 몸 문화와 주체적 몸 윤리 : 외모 가꾸기를 중심으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4.1 (2020): 1-13.

31) 김혜정. 『다이어트 학교』, 자음과 모음, 2012, 262쪽.

32) 정황균. 「기형과 혼종 - 란스마이어의 『최후의 세계』에 나타난 괴물의 양가성」, 독일어문화권 연구 28.0 (2019): 421-420쪽.

33) M. 푸코. 『비정상인들』, 박정자 역, 동문선 2001, 214쪽. 문병화. "Foucault의 사상이 특수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3쪽 재인용.

인 혼종적 괴물로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주인공 하늬와 동생 산들은 몬스터 차일드다. 이들 남매는 억제제를 복용하며 발작을 억누르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전학과 이사를 거듭한다. 하늬가 MCS 치료 센터가 있다는 동네로 일곱 번째 전학을 간 날, 학교에서 또 다른 MCS 연우를 만난다. 연우는 변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고, 하늬가 변이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연우의 아지트 숲에서 괴물의 모습으로 완전 변이한 하늬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낀다. 치료센터의 소장님은 하늬가 있는 그대로의 괴물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같은 반 서욱이네 농장을 침입한 괴물이 연우가 아니고, MCS라는 이유로 버려진 연우 동생 승아의 사연을 접하면서 하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하늬는 내면의 괴물 아이를 또 다른 오히리로 받아들이며 자신 속에 있는 괴물을 수용한다. ‘괴물 되기’라는 변신 과정은 새로운 나, 확장된 나를 찾는 계기가 되며, 정상성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각성을 통해 자신을 통찰하게 된다.³⁴⁾ 정상 비정상의 경계 밖으로 나가 의미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하늬의 탈주는, 기존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스스로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주체적 의지의 표현으로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³⁵⁾이다. 괴물로 변신하는 아이들에게 내재된 다양한 정체성과 변신 가능성은 단일한 정체성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을 준다. 괴물의 변신 가능성은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인 사회의 억압성을 깰 수 있는 긍정적인 전복의 힘³⁶⁾으로 볼 수 있다. 『몬스터 차일드』는 불시에 괴물로 변하는 아이들에게는 잘못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런 아이들을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하늬의 탈주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자행되는 배제와 억압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³⁷⁾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에 작동된다.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내면으로 침투해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 아동의 삶에도 자본의 논리는 적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아동이 사회에서 유용한 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아동은 끊임없이 학업을 강요받고 입시 지옥으로 내몰린다. 더불어 아동은 사회 안에서 기성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규범에 순응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한다.

명문대 학벌을 갖추기 원하는 부모의 욕망이 지나치면 자녀를 향한 교육학대로 이어진다. 『가짜 모범생』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엄마의 학대와 집착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다. 엄마에게 학벌은 성장하는 자녀가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손현주 작가는 ‘강요에 의한 교육이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억압의 상태로 몰고 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내적 괴물을 만들어 낸다’며 교육 학대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엄마의 교육 학대는 쌍둥이들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긴다. 전교 1등 영재 코스만 밟아온 완벽했던 형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엄마는 형의 죄를 덮기 위해 동생에게 거짓 자백을 종용한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순간에 모범생에서 보호 관찰 소년이 돼버린 형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34) 오세란. 「최근 아동청소년판타지문학에 나타난 인물변신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90, 2022. 353쪽.

35) 오세란. 위의 글, 353-354쪽.

36) 정향균. 위의 글, 422쪽.

37) 김민령. 「어느 날, 털복숭이 괴물이 되었다.」, 『몬스터 차일드』, 사계절, 2021, 207쪽.

엄마의 광적인 집착은 이제 형에서 동생으로 옮겨간다. 동생 선휘는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황폐해진 정신과 몸의 이상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같은 반 은빈이를 통해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선휘를 향해 숨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엄마의 압박은 탈출구가 없었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갈등이 최고조일 때, 선휘는 형이 갔던 길을 따라가서 엄마의 끝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려 한다. 남아있는 아들마저 죽음을 선택하려는 행동에 엄마는 충격을 받고 결국 선휘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선택권을 엄마로부터 쟁취한다. 엄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엄마의 꿈을 짊어지고 살았던 ‘가짜 모범생’인 선휘는 모범생의 삶을 끝내기로 하면서 제도권 교육과 엄마의 욕망으로부터 탈주한다.

아동청소년 소설의 서사 배경은 주로 집과 가족이다. 사적 생활 공간인 집에 비해, 가족은 개인이 사회와 이어지는 매개체이자 사회를 압축한 곳이다. 사회의 환유로서 가족은 ‘나’라는 개인을 형성해주는 기초 공간이며, 사회는 곧 가족이다.³⁸⁾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장에서 가족은 중요한 변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상정할 때 가족 이데올로기를 떠올릴 수 있다. 가족 이데올로기란 모든 사람은 가족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거나, 가족은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데, 기본 수혜 단위를 가족으로 상정한 채 가족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정책 등은 모두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³⁹⁾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아동청소년 주체의 탈주 서사로는 『페인트』를 들 수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가족의 기존 통념을 깨고 스스로의 삶을 찾는 주체다. 『페인트』의 주인공 제누는 부모를 골라 가족을 구성해야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다. 이야기는 국가가 센터를 세우고 아이를 키워주는 가상의 사회가 배경이다. 면접을 통해 부모를 고를 수 있는 아이가 주체가 되어 가족을 구성한다. 『페인트』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정에서부터 가족 구성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깬다. 또한, 부모를 선택하는 자녀의 입장과 선택의 결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인공 제누의 성장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자식에게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고 무조건 희생하는 완벽한 부모란 애당초 있을 수 없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자녀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자녀가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식도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다. 제누의 선택은 억지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만들어 가족을 이뤄야만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다. 바로 이점이 기존 가족 중심의 성장 서사에서 볼 수 없는 탈주의 의미일 것이다.

3.2. 탈주를 유발하는 상징계의 질서

우리는 타자에 의해 규정되고,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욕망을 구성한다. 그런데 욕망하는 자아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데, 무의식적인 ‘나’를 만드는 타자는 큰타자로

38) 황도경, 나은진.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현대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0), (2004) 252쪽.

39) 최미령. “한국 청소년소설에 투영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10, 28쪽.

불리는 사회체계의 규범으로 정신분석학에서 상징계(법)=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다.⁴⁰⁾ 언어로 작동되는 상징계에서 대타자(큰타자)는 언어 위에 있는 강력한 권력으로 상징계를 지배한다. 인류의 역사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 온 현상을 은유하기 때문에 대타자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권력이며, 세상의 법과 질서, 언어의 장소⁴¹⁾다. 아버지의 권력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상징계에 들어와 길들여지는 주체를 규정하고 욕망을 제한한다. 즉 아버지의 권력은 당대 사회에서 시행되는 광범위한 규율과 규칙이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욕망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

상징계에 동화되지 않은 채로 주변부와 한계지점에 위치한 또 다른 타자가 존재한다. 하층민, 여성, 미성년자 등이 이에 속하는데, 특히 미성년자는 다른 타자들과는 달리 상징계를 수용하는 교육이라는 제도에 얽매어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계(사회체계)의 주변부에 위치한 이러한 타자들은, 상징계를 내면화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⁴²⁾ 대타자인 ‘아버지’는 전근대적 가치, 자본주의, 현실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표상을 함의하며, 성장 주체인 아동 청소년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저항 또는 타협의 길항에서 갈등하는 ‘타자’다. 탈주 주체인 이들은 저항하는 아들로써 타자적 입장을 주변 세계를 향하여 관철⁴³⁾시킨다.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징계의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이다.

탈주하는 주체들의 저항의 대상이 되는 상징계의 권력은 자본주의가 침투한 세속화된 상징계의 질서이다. 작품 속 미성년 아이들은 부모나 사회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어른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마른 몸과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성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 또한, 미시적 규율 권력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억압한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성장해야만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암묵적 제약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절에서는 미성년 주체들의 탈주를 유발하는 상징계의 질서를 살펴본다.

『다이어트 학교』의 아이들은 마른 몸이 정상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마른 몸 예찬에 대한 사회의 규범은 뚱뚱한 몸을 죄악시한다. 뚱뚱한 몸을 향한 비난은 가족도 예외일 수 없으며, 체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골적인 시선과 놀림을 감수해야 한다. 몸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은 뚱뚱한 몸에서 벗어나야만 정상성의 기준에 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권력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몸의 기준은 일부 사람에게만 외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정상적 기준의 형성에 참여한다. 우리 모두가 정상 분포 곡선에 참여⁴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념 속에 깊숙하게 자리한 몸에 대한 담론이 아이들의 몸을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변화를 요구하는 강압적인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특질인 괴물성을 가진 『몬스터 차일드』의 주인공들은 사회로부터 규범성을 강요받는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괴물성은 철저하게 비정상성으로 분리된다.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간을 우위에 두는 휴머니즘이 오랫동안 인류 가치관의 근간이 되어왔지만, 휴머니즘은 인간이라는 개념에 지나치게 특권을 부여하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경계를 확고히 하면서 배타적인

40) 나병철. 위의 책, 477쪽.

41) 이경란.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주체 형성과 아버지.”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7. 33-34쪽.

42) 나병철, 위의 책, 477-478쪽.

43) 조준래. 「구(舊) 유고슬라비아 성장소설에 나타난 반오이디푸스적 욕망 연구.」 동유럽연구 31. (2012) 155-156쪽.

44) S. 트레마인. 위의 책, 250쪽.

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⁴⁵⁾ 비정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물성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 규범을 저해하는 요소다. 때문에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감시당하고 스스로 발작을 억제해야 한다. 정상인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인간의 규칙에 적응시키고 순화시킴으로써 괴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 담론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괴물성을 감춰야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압으로 작동한다. 뚱뚱한 몸을 가진 아이들, 괴물성을 지닌 아이들 모두 다양성의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획일화된 정상 담론 때문에 비정상화된 객체들이다. 그들에게 덧씌워진 비정상성을 강제적으로 정상화하려는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도들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벗어나는 탈주를 유발하는 저항의 대상으로서 권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은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신체의 미성숙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소유물’로서 부모의 감독에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 부모가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모, 자녀 관계의 본질적인 불평등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신적으로 속박하고 아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⁴⁶⁾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아동은 부모에게 자율을 빼앗기고 부모의 요구를 강제적으로 수용한다. 가족과 학교를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억압과 불평등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들에 의해 이뤄지는 체계적인 아동 인권침해다.⁴⁷⁾

교육 확대는 교육적 힘의 남용이라는 시각과 교육적 부적절한 취급, 대우, 처지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적 힘의 남용에 대표적인 사례로 체벌이 있다.⁴⁸⁾ 체벌도 주저하지 않는 강압적 양육 태도는 부모의 뜻이 성취되기 바라는 강렬한 소망과 소망이 좌절될 수 있다는 불안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좌우되는 행동이다. 자녀의 수준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과 뜻을 강요하는 주관성의 강한 압력이다. 부모는 자신과 대치되는 자녀의 가치와 견해는 일절 수용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녀가 무조건 맞추고 따를 것을 요구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⁴⁹⁾

『가짜 모범생』의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 진학은 학력에 따라 차별을 두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학벌주의는 결국 엘리트주의를 낳는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사회의 엘리트로 키워내려는 엄마의 욕망이 교육확대로 이어지며 자식들을 극한으로 몰아낸 것이다. 상징계로 은유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학벌은 학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회의 계급의식과 계급 갈등의 특징적 단면을 보여주는 렌즈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벌은 사회 전 영역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떨치는데, 특히 명문대 졸업장의 문화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위력은 교육을 권력 획득 수단으로 만들고, 시험 성적을 교육의 최고 목적이 되게 하는 왜곡된 교육열을 조장하는 교육 병리 현상의 핵심요인⁵⁰⁾이 된다. 세속화된 상징계의 심각한 학벌주의는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의 숨통을 틀어막는 억압 기제이며 탈주

45) 오세란. 위의 글, 348쪽.

46) 배경내.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뉴 래디컬 리뷰, (17), (2003). 209쪽.

47) 배경내. 위의 논문, 213쪽.

48) 유선중. 『중2병 해우소』, 이너브리지, 2020, 94-95쪽

49) 한경선. “강압적 양육이 순응적 자녀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11쪽.

50) 이견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 2007, 63-85쪽.

를 일으키는 권력으로 자리한다.

근대 이후 만들어진 아버지-어머니-자녀로 이뤄진 ‘단일 가족’ 모델은 현대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정상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가족, 예를 들어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은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갖가지 혜택과 법제가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상 가족’이라는 가족 형태가 자본주의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자본주의적 가족을 바람직한 가족 모델로 여기는 것은 자본주의의 책략이며 이데올로기화된 가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는 가족을 가족주의라는 비판 대상으로 만들었다. 즉 가족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표상화된 가족모델이라는 것이다.⁵¹⁾

『페인트』의 배경이 되는 NC 센터의 아이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거부당한다. 이야기는 미래를 상정한 소설이지만, 현실 속 가족의 의미를 반추하는 내용이다. 양육의 의무를 취사선택하고 아이를 죄책감 없이 유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없는 아동에게는 권력적이다. 이야기의 중심 공간인 NC 센터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센터의 아이들은 어떻게든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해 가족을 구성해야만 사회에 온전한 상태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NC 센터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모는 전형적인 남녀 부부여야만 하기에 가족 변화론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다른 형태의 가족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족이 형성되면 부부에게는 정부의 연금 혜택 등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고, 부모를 선택해 가족이 생긴 아이에게는 NC 센터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꼬리표가 사라진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반드시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정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 어른들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향한 어른들의 권력이다.

아이를 위탁기관에 유기하는 어른의 행동과 양육 책임에 대한 회피, 버려진 아이들이 겪는 가족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 내가 속한 가족이 정상 가족이 아닐 경우 쏟아지는 냉대와 차별적 시선 등이 두 작품의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탈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화된 가족의 의미가 가족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상정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다.⁵²⁾ 이는 정상 가족이라는 가족의 형태가 자본주의의 가족 모델로서 구체화되는 양상의 발현이다. 결국 미성년에게는 이상적인 가정에 소속되고 성장해야만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암묵적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제약을 깨고 탈주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짓고 판단하며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간다.

3.3. 서사 결말에서 주체의 탈주 양상

본고에서 논의하고, 분석하는 탈주 서사는 성장소설로서 의미를 가지는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이다. 탈주 서사는 아동청소년 인물이 상징계의 질서로 대표되는 성인 사회의 억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이는 본래의 상태가 존재하고, 그것을 주체의 행위에 의해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이야기⁵³⁾라 볼 수 있다. 모든

51) 주현. “‘가족주의’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7, 15쪽.

52) 김은영. “중학교 국어 교과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90쪽.

서사 작품이 실천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의 이야기로 구성될⁵⁴⁾때, 탈주 서사 결말에 나타나는 주체의 탈주 양상 역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를 통한 탈주와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가 이뤄지는 탈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를 통한 탈주는 아동청소년 주체가 세계 안에 머물며 기존의 규범, 가치를 전복하거나 재구성하여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대하는 아동청소년 주체의 태도,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는 탈주하는 아동청소년 주체가 상징계의 억압적 질서에 갈등과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주체의 행위 의지를 통해 억압적 질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탈주를 유발하는 갈등 상황이나 장소의 경계로부터 몸을 빼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논의 대상 작품의 결말에서 드러난 주체의 탈주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1)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내면화한 주체의 탈주가 드러나는 작품은 『다이어트 학교』, 『몬스터 차일드』, 『페인트』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성인 사회의 억압적 담론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면의 인식에 변화가 발생한다. 『다이어트 학교』 탈주 주체로서 홍희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몸의 주체가 된다. 홍희는 자본의 논리를 내포한 가치 있는 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 결말을 통해 드러나는 홍희의 변화된 인식은 더 이상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지 않는다. 홍희의 탈주는 강제적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회의 암묵적 권고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나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내면화하고 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인식의 전환은 『몬스터 차일드』의 주인공 하늬의 탈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혼종적 존재인 하늬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늬의 내면에는 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감추는 것이 자신을 괴물로 보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하늬는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해 억제제를 복용하며 발작을 억누른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연우 일행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변신을 선택한 하늬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괴물성을 감추기 급급했던 하늬가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를 감춰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늬의 내면 인식은 탈주를 통해 완전히 바뀐다. 정체 드러내기를 통해 ‘다름’을 배제하려는 규범적 사고를 일갈한다.

『페인트』는 주인공 제누의 생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재고한다. 제누의 탈주는 가족에 대한 기존 인식을 재구성하고 스스로 의미를 정립한다. 사랑으로만 연결되지 않는 가족은 관계하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다. 부모란 마음의 마찰로 인해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독립해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들 스스로 질문과 반성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제누는 그런 부모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제누의 인식적 차원의 탈주는 가족 구성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회의를 통해 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홀로서는 주체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53) 송효섭. “三國遺事의 幻想的 이야기에 대한 記號學的 研究.” 西江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9. 25쪽. 최현주 위의 논문, 22쪽에서 재인용.

54) 최현주. 위의 논문, 25쪽.

2)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

주체의 행위 의지를 통해 경계를 벗어나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탈주 서사로는 『가짜 모범생』을 들 수 있다. 앞선 논의대로 탈경계를 지향하는 탈주는 아동청소년 주체가 상징계의 억압적 질서에 갈등과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주체의 행위 의지를 통해 억압적 질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즉 탈주를 유발하는 갈등 상황이나 장소로부터 몸을 빼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탈경계는 고착화된 경계를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는 경계를 그대로 두고 이를 단순히 이탈, 또는 넘어가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탈경계의 사유를 통해 경계 자체를 근거 짓는 것, 경계를 허락하고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재검토이자 경계 이전이나 경계 아래의 연속적인 사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⁵⁵⁾

상징계에서 대타자는 언어 위에 있는 강력한 권력으로 상징계를 지배한다. 아버지로 은유되는 상징계의 권력은 당대 사회에서 시행되는 광범위한 규율과 규칙이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욕망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 『가짜 모범생』 선휘는 엄마가 안겨준 꿈을 내려놓으면서 제도권 교육의 중심인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가 상주하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입시 경쟁 교육체제에서 학벌 만능주의에 동참하며 자녀에게 학대를 서슴지 않는 엄마로부터 탈주하는 선휘의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옥죄는 학벌 중심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생성할 수 있다. 선휘는 미성년 주체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 공간인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는 탈주를 실행한다. 이는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온 가면을 벗고 본인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4.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아동 청소년소설에서 탈주하는 아동을 형상화하고 탈주를 유발하는 저항의 대상인 상징계의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다. 탈주하는 아동안 세계와의 화해를 거부하며 어른에 의해 설정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아동이다. 탈주 서사 결말에 나타나는 주체의 탈주 양상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를 통한 탈주와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가 이뤄지는 탈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성장서사와 구분되는 탈주 서사의 특징은 이야기의 구조상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 아동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갈등의 양상이 전면화되는 대립 관계다. 주인공은 세계와 화합하지 않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탈주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탈주 서사의 결말에서 드러나는 탈주 양상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를 통한 변화와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가 이뤄지는 탈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문학의 ‘탈주 서사란 아동 청소년 인물이 상징계의 질서로 대표되는 성인 사회의 억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열린 결말의 성장 서사’로 정의한다.

탈주하는 주체로서 아동의 형상은 정상성의 내면화를 강요받는 아동이다. 정상성의 내면

55) 경계는 어떤 흐름, 행위, 사유의 자기동일성을 보장하는 안전막이면서 또한 그 흐름, 행위, 사유가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 서게 만드는 한계다.

김재희, 「탈경계의 사유: 카프카를 통해본 해체와 탈주의 철학」, 철학사상, 20,(2005). 108-109쪽.

화를 강요받는 아동은 사회가 원하는 몸이 되거나 외형을 만들기 위해 욕망을 억제하고 본성을 감춰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아동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아동은 어른들의 요구를 강요받고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가족의 기존 통념을 깨고 스스로의 삶을 찾는 아동이다. 탈주하는 주인공은 가족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의 해체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동의 탈주를 유발하는 상징계의 질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강요되는 어른들의 요구들이다. 어른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마른 몸과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성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 또한, 미시적 규율 권력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억압한다. 아동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소유물’로 치부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존재 되기를 강요받는다. 더불어 자본주의는 가족을 사회의 최소 단위로 규정하고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상적인 가정에 소속되고 성장해야만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아동을 옴아맨다.

서사 결말에 나타나는 주체의 탈주 양상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를 통한 탈주와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가 이뤄지는 탈주로 구분한다. 새로운 인식의 내면화란 탈주를 통해 바뀌는 새로운 인식이 기존의 규범, 가치를 전복하거나 재구성하여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물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천적 행위 의지를 통한 탈경계화는 탈주하는 아동청소년 주체가 상징계의 억압적 질서에 갈등과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주체의 행위 의지를 통해 억압적 질서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탈주를 유발하는 갈등 상황이나 장소의 경계로부터 몸을 빼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탈주 서사는 인물의 탈주를 통해 어른들의 가치, 규범의 수용을 거부하는 아동 주체의 변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일상성의 변화된 모습이며 사회화 과정의 이탈을 통한 저항의 표현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능동적인 현실의 어린이가 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주인공이다. 문학을 통해서 성인 중심 세상에서 더 이상 타자로 자리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자료]

- 김혜정 (2012). 다이어트 학교, 자음과모음.
이재문 (2021). 몬스터 차일드, 사계절.
이희영 (2019). 페인트, 창비.
손현주 (2021). 가짜 모범생, 특별한 서재.

[단행본]

- 김상환, 홍준기.(2002).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나병철 (2007).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이진경 (2002).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유선중 (2020). 『중2병 해우소』,이너브리지.
H. 르페브르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과당.
M. 푸코 (2012).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M. 푸코 (2010).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S. 트레마인 (2020). 『푸코와 장애의 통치』,박정수와 옮김. 그린비출판사.

[참고논문]

- 김민령 (2021). 「어느 날, 털복숭이 괴물이 되었다.」, 『몬스터 차일드』, 사계절.
김은영 (2013). 중학교 국어 교과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김종갑 (2020). 한국 사회의 타자화된 몸 문화와 주체적 몸 윤리 : 외모 가꾸기를 중심으로. 건국대 몸 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4.1
김중현 (2009). 靑少年小説의 現實反映과 人物의 內面 成長, 아동문학평론, 34(4)
김지선 (2015). 탈주문학으로서의 델리웨이 부인.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ATE 5.- :3-22.
김태호 (2012).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김태호, 강동희 (2023). 아동문학에 나타난 반오이디푸스 성장 - 동물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44), 61-80.
김태현 (2013). 문정희 시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재희 (2005). 「탈경계의 사유: 카프카를 통해 본 해체와 탈주의 철학.」 철학사상, 20.
류미향 (2011). 부정적 교육열로부터의 탈주와 아동의 교육권 찾기, 아동과 권리, 15(4), 541-561.
문병화 (2012). Foucault의 사상이 특수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방은수 (2018). 현대 한국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22).
배경내 (2003).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뉴 래디컬 리뷰,(17).
송효섭 (1989). 三國遺事의 幻想的 이야기에 대한 記號學的 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심선연 (2017). 현대 아동소설의 열린 결말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연효숙 (2018). 「들뢰즈, 가타리의 분열분석에서 억압과 무의식의 문제」 철학연구, 121.
오세란 (2022). 최근 아동청소년판타지문학에 나타난 인물변신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90.
원종찬 (2009). 아동문학의 주인공과 아동관에 대하여. 창비어린이, 7(2), 26-41.
유휘경 (2020). 힘의 관점에서 살펴 본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문학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이경란 (2017).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주체 형성과 아버지. 부경대, 박사논문.
이건만 (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
이주연 (2019).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정향균 (2019). 「기형과 혼종 - 란스마이어의 『최후의 세계』에 나타난 괴물의 양가성.」 독일어문학회연구 28.0
정형철 (2006).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과 동양적 사유의 방식. 비교문학 38 .171-201.
정인탁 (2015). 오규원 시 연구- 탈주와 생성의 노마드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주 현 (2017). 「가족주의」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최미령 (2010). 한국 청소년소설에 투영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최현주 (1999).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경선 (2005). 강압적 양육이 순응적 자녀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황도경, 나은진 (2004).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0), 237-258.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탈주 서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

강동희(아동문학평론가)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서 성인 세계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탈주하는 아동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탈주 서사의 전반적 특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버지의 권력’으로 표상되는 기성의 질서를 벗어나 아동청소년 인물의 고유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작품들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이 새로이 구축해 나아가야 할 영역을 적절히 모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문을 읽으며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여쭙겠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탈주와 탈주 서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캉이 설정한 상상계와 상징계의 개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주란 ‘성인 세계로의 편입에 저항하는 아동 주체들의 일탈’이며, 탈주 서사는 ‘상징계의 질서로 대표되는 성인 사회의 억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열린 결말의 성장 서사’로 정의됩니다. 이때 인물의 ‘거부’와 ‘저항’은 최초 상징계로의 진입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후적인 거부와 저항을 인물이 지닌 ‘좌절감’ 또는 ‘수동적 공격성’의 표출과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탈주 개념을 인물의 단순 회피 반응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데에 단서를 얻고자 합니다. 예컨대 『다이어트 학교』에서 주인공 ‘홍희’는 처음에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좇다가 단계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면서 차츰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모순을 간파하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몬스터 차일드』의 주인공 ‘하늬’도 내내 자신의 혼종적 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홍희와 하늬의 행동을 좌절감이나 공격성의 표출을 넘어 주체적 저항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둘째, 이 연구는 작품 속 탈주를 유발하는 상징계의 질서를 ‘자본주의 사회의 아동이 어른들로부터 받게 되는 강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 순간 제 존재의 정상성과 유용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아동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주류 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도식 자체는 물론 합리적이거나, 한편으로 불의한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내는 것은 비단 탈주 서사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 문학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시점에서 탈주 서사만이 갖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나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열린 결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견해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확정된 의미로 해석되길 의도하고 쓰인 결말은 닫힌 것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는 결말은 열린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분히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맞는 결말을 열린 결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다룬 네 작품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신 구체적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문학에서 탈주 서사가 전개되는 구조와 양상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아동청소년 문학의 지평이 점차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혹 저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오독한 지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